

ISSN 1225-5254

學生指導研究

第 21 輯



2002

同德女子大學校 學生生活研究所

目 次

■ 2002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분석

I. 머리말	5
II. 조사방법	5
1. 조사대상 및 방법	5
2. 조사도구 및 내용	6
3. 자료분석방법	8
III. 연구결과	9
1. 신입생들의 일반적인 특성	9
2. 신입생의 환경특성	18
3. 대학 및 전공에 관한 의견	28
4. 대학생활	41
5. 학생생활연구소 이용안내 및 질문	53
IV. 요약 및 결론	59

■ 2002년 학생생활연구소 활동

I. 상담활동	64
1. 개인 상담	64
2. 집단 상담	64
II. 심리검사	65
III. 연구 및 기타활동	66
1. 2002 신입생 실태조사	66
2. 영화상영	66
IV. 학생생활연구소 구성	66
1. 조직표	66
2. 인적사항	67

2002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분석

구현아(학생생활연구소 연구원)

윤주화(학생생활연구소 연구원)

신혜인(학생생활연구소 조 교)

I. 머리말

동덕여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는 1964년도 설립 이래, 신입생들의 사회환경적 특성을 파악하고 대학 생활 전반 및 장래 계획 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조사연구를 지속해오고 있다. 이와 같은 실태 조사의 근본적인 목적은 본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의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을 도울 뿐 아니라, 본 대학의 학생지도 방안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2002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에서는 이와 같은 전통적인 목적을 고수하는 한편, 최근 들어 다양하게 변화된 입시 제도 하에서 본 대학교가 추진해오고 있는 홍보 방법과, 본 대학교의 발전 전략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신입생들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학생생활연구소에서 실시해오던 신입생 실태조사는 1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실시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에 수행된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최근 수 년 동안에는 3월에 학기가 시작된 이후 조사를 실시하여 1학기가 상당부분 진행 된 시점에서 조사를 종료하는 방법이 적용되어 왔다. 금번 2002학년도 실태조사 역시 학기가 시작된 후인 4월에 조사를 시작하여 6월 초에 종료하였다. 따라서 신입생들은 본 대학교에서 이미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며, 입학 전에 비하여 대학생활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인식을 소지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본 조사의 결과는 그러한 시기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지난 2001년도에는 연구소의 사정으로 인하여 연구지가 발간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II. 조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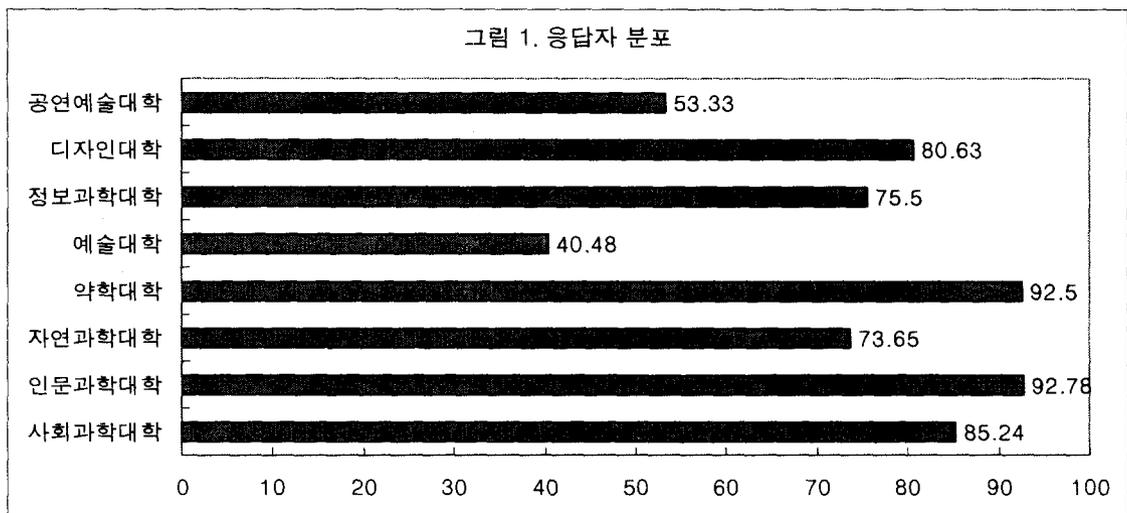
1.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설문조사는 2002학년도 신입생 전체 157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2002년 4월부터 6월까

지 약 2개월의 기간동안 신입생 대상 교양과목인 <독서와 토론> 수업 전후 시간을 이용하여 배부·수
 합되었다. 부득이 설문에 참여할 수 없었던 학생, 결석생, 분석에 사용될 수 없는 반응의 경우 등을
 제외하고, 1,259 명의 응답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표 1>은 본 대학교의 8개 단과대학별 재적 학생
 수와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표 1> 단과대학별 응답자 분포

	재적 학생수	응답자 수	%
사회과학대학	210	179	85.24
인문과학대학	360	334	92.78
자연과학대학	277	204	73.65
약학대학	40	37	92.50
예술대학	210	161	40.48
정보과학대학	200	151	75.50
디자인대학	160	129	80.63
공연예술대학	120	64	53.33
전체	1577	1259	79.84



<표 1>의 응답자 분포를 보면, 인문과학대학과 약학대학의 응답자 수가 재적 학생 수의 90%를 상회
 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이 설문에 참여하였고, 이 외에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정보과학대학은
 70% 이상의 학생들이 설문에 응하였다. 그러나 예술대학과 정보과학대학은 각각 40.48%와 53.33%의
 학생이 참여하여 다른 단과대학에 비해 낮은 분포를 보였다.

2. 조사도구 및 내용

본 실태조사에서 사용된 도구는 신입생의 일반특성, 환경특성, 대학 및 전공선택에 관한 의견, 대학 생활에 관한 의견 등을 묻는 43 개 문항, 그리고 학생생활연구소 이용에 관한 6개의 문항을 포함하여 총 49문항으로 이루어진 질문지였다. 질문지의 구성과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입생의 일반특성:** 이 영역은 신입생의 신상에 관한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① 출생년도 ② 재수경험 ③ 입학 전 사회경험 유무 ④ 종교
- ⑤ 입학유형 ⑥ 출신고교 소재지 ⑦ 주거지 ⑧ 통학 시 소요되는 시간

(2) **신입생의 환경특성:** 이 영역은 신입생들의 가정환경에 관한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① 부모생존여부 ② 동거여부 ③ 부 교육수준 ④ 모 교육수준,
- ⑤ 부 직업 ⑥ 모 직업 ⑦ 직업 ⑧ 가족에게 당면한 가장 큰 문제
- ⑨ 등록금 ⑩ 용돈정도

(3) **대학 및 전공선택에 관한 의견:** 신입생들이 대학 및 전공을 선택한 이유에 관한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① 본교를 선택한 동기 ② 본교 선택 시 결정적인 영향을 준 인물
- ③ 본교에 대한 정보를 알게된 근원 ④ 본교 홍보에 대한 인상
- ⑤ 본교 홍보에 적절한 시기 ⑥ 본교에 대한 만족 정도 ⑦ 본교에 대한 만족 이유
- ⑧ 학부선택의 동기 ⑨ 본교에 대한 이미지 ⑩ 여자대학의 장점
- ⑪ 모집단위 관련 정보 수집 근원 ⑫ 본교 선택 시기

(4) **대학생활:** 이 영역은 대학생활에 대한 신입생들의 기대와 목적, 동아리활동, 아르바이트, 졸업후의 진로, 사회와의 관계 등에 관한 의견을 묻는 13개의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 ① 교수님에 대한 기대 ② 대학 진학 목적 ③ 대학생으로서 추구해야 할 바
- ④ 전공공부의 하고싶은 일 ⑤ 사회에서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요인
- ⑥ 졸업 후 계획 ⑦ 직업 선택 시 고려점 ⑧ 동아리 활동여부
- ⑨ 하고싶은 동아리활동 분야 ⑩ 유학 또는 연수 희망여부 ⑪ 부직희망 여부
- ⑫ 부직희망 종목 ⑬ 부직희망 이유

(5) **학생생활연구소의 이용:** 이 영역은 학생생활연구소에 대한 신입생들의 인지정도 및 그들의 기대에 관한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① 학생생활 연구소에 대한 인지도 ② 학생생활 연구소 이용 의사
- ③ 이용시 가장 받고 싶은 검사 ④ 가장 이용하고 싶은 것
- ⑤ 개인상담 참여시 받고 싶은 상담내용 ⑥ 집단상담 참여시 받고 싶은 프로그램

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신입생들의 응답을 분석하기 위하여 SPSS/WIN을 활용해서 전체 및 단과대학별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Ⅲ.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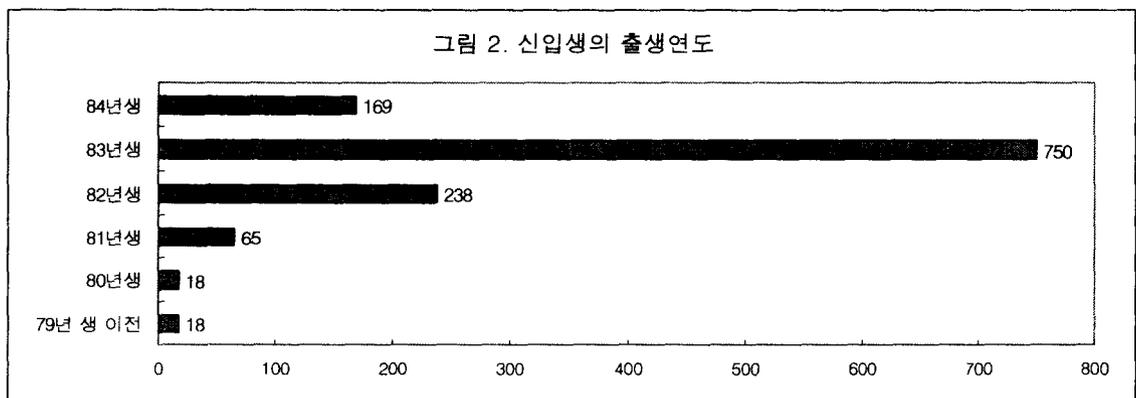
1. 신입생들의 일반적인 특성

(1) 출생연도

2002 학년도 신입생들의 출생연도를 살펴보면, 1983년에 출생한 학생이 59.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82년생이 18.9%, 84년생이 13.4%를 차지하였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1983년생이 가장 많은 대학은 자연과학대학으로, 66.7%의 학생이 해당되었다. 반면에, 약학대학의 경우에는 1982년생이 가장 많은 비율인 37.8%를 차지하여 비교적 많은 학생들의 재수 경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표 2〉 단과대학별 출생 연도

	사회과학 대학	인문과학 대학	자연과학 대학	약학 대학	예술 대학	정보과학 대학	디자인 대학	공연예술 대학	전체
84년생	20 11.2%	40 12.0%	30 14.7%	1 2.7%	22 13.7%	26 17.2%	21 16.4%	9 14.1%	169 13.4%
83년생	102 57.0%	195 58.4%	136 66.7%	17 45.9%	90 55.9%	93 61.6%	77 60.2%	40 62.5%	750 59.6%
82년생	39 21.8%	66 19.8%	30 14.7%	14 37.8%	34 21.1%	20 13.2%	24 18.8%	11 17.2%	238 18.9%
81년생	14 7.8%	21 6.3%	6 2.9%	2 5.4%	7 4.3%	10 6.6%	2 1.6%	3 4.7%	65 5.2%
80년생	3 1.7%	8 2.4%	1 .5%	2 5.4%	1 .6%	1 .7%	2 1.6%		18 1.4%
79년생 이전	1 .6%	4 1.2%	1 .5%	1 2.7%	7 4.3%	1 .7%	2 1.6%	1 1.6%	18 1.4%
전체	179 100.0%	334 100.0%	204 100.0%	37 100.0%	161 100.0%	151 100.0%	128 100.0%	64 100.0%	125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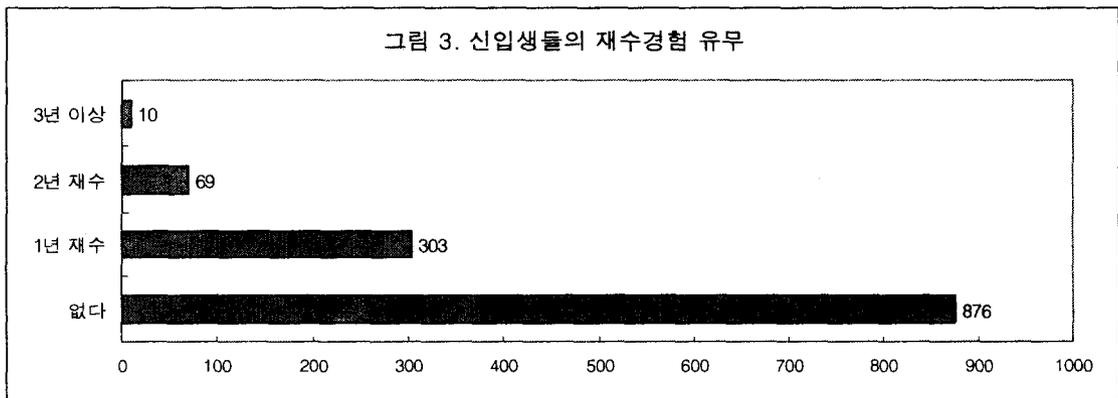
(2) 재수경험

2002년 신입생들의 재수 경험 유무를 분석한 결과, 69.6%의 학생이 재수 경험 없이 본교에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년의 재수 경험이 있는 학생은 24.1%였다. 한편, 2년 이상 재수한 학생들의 비율은 6.3%를 차지하였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재수 경험이 없이 입학한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자연과학대학으로 79.8%의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본교에 진학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가 하면, 약학대학의 경우 재수 경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59.5%의 학생들이 1년 이상의 재수 경험이 있어 다른 단과대학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은 비율이었다.

〈표 3〉 단과대학별 재수경험 유무

	사회과학 대학	인문과학 대학	자연과학 대학	약학 대학	예술 대학	정보과학 대학	디자인 대학	공연예술 대학	전체
없다	113 63.1%	220 65.9%	162 79.8%	15 40.5%	108 67.1%	118 78.1%	92 71.3%	48 75.0%	876 69.6%
1년재수	53 29.6%	92 27.5%	32 15.8%	14 37.8%	44 27.3%	25 16.6%	30 23.3%	13 20.3%	303 24.1%
2년재수	11 6.1%	20 6.0%	9 4.4%	7 18.9%	7 4.3%	8 5.3%	4 3.1%	3 4.7%	69 5.5%
3년이상 재수	2 1.1%	2 .6%		1 2.7%	2 1.2%		3 2.3%		10 .8%
전체	179 100.0%	334 100.0%	203 100.0%	37 100.0%	161 100.0%	151 100.0%	129 100.0%	64 100.0%	125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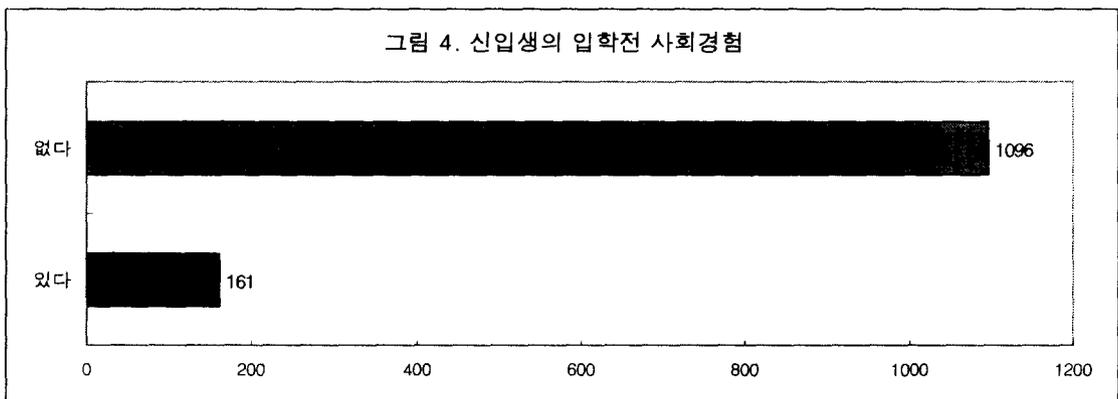


(3) 입학 전 사회경험

본교 입학 전 신입생들의 사회 경험 유무에 있어서는 전체의 12.8%가 사회경험을 갖고 있었고, 없는 경우가 87.2%였다. 사회경험이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은 대학은 공연예술대학으로 26.6%의 신입생들이 사회경험이 있었으며, 이어서 사회과학대학 신입생들의 18%가 입학 전에 사회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경험이 가장 없는 단과대학은 약학대학으로 94.6%의 신입생들이 사회 경험을 해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자연과학대학 신입생들도 대부분 사회경험이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 단과대학별 입학 전 사회경험

	사회과학 대학	인문과학 대학	자연과학 대학	약학 대학	예술 대학	정보과학 대학	디자인 대학	공연예술 대학	전체
있다	32 18.0%	33 9.9%	17 8.3%	2 5.4%	19 11.8%	23 15.2%	18 14.0%	17 26.6%	161 12.8%
없다	146 82.0%	300 90.1%	187 91.7%	35 94.6%	142 88.2%	128 84.8%	111 86.0%	47 73.4%	1096 87.2%
전체	178 100.0%	333 100.0%	204 100.0%	37 100.0%	161 100.0%	151 100.0%	129 100.0%	64 100.0%	125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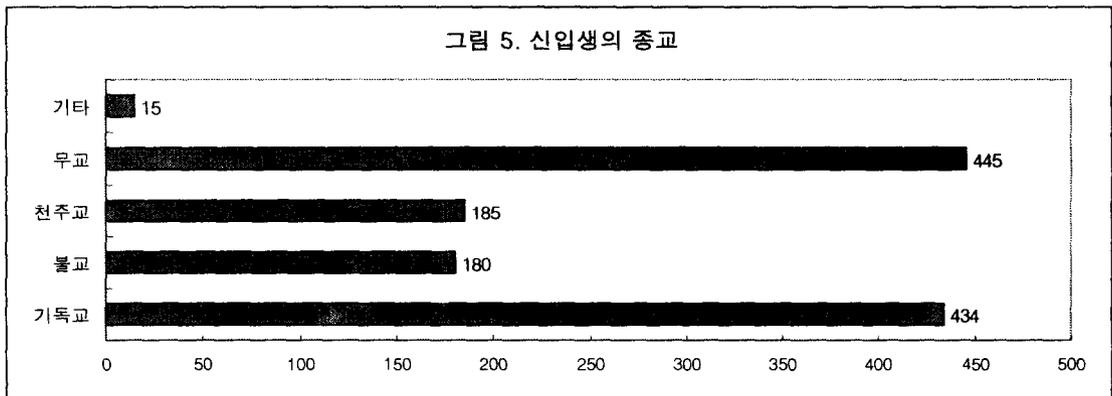


(4) 종교

종교의 종류를 알아본 결과, 무교가 3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기독교가 34.5%로 두 번째 순위를 차지하였다. 한편, 천주교와 불교는 각각 14.7%, 14.3%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단과대학별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경우는 공연예술대학에서 기독교를 종교로 갖고 있는 경우로, 그 비율은 51.5%를 차지하였다. 또한 무교의 경우는 약학대학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는데, 48.6%의 학생들이 종교가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5〉 단과대학별 종교

	사회과학 대학	인문과학 대학	자연과학 대학	약학 대학	예술 대학	정보과학 대학	디자인 대학	공연예술 대학	전체
기독교	60 33.5%	96 28.7%	61 29.9%	11 29.7%	71 44.1%	54 35.8%	48 37.2%	33 51.6%	434 34.5%
불교	23 12.8%	59 17.7%	29 14.2%		22 13.7%	26 17.2%	14 10.9%	7 10.9%	180 14.3%
천주교	20 11.2%	42 12.6%	32 15.7%	8 21.6%	32 19.9%	16 10.6%	23 17.8%	12 18.8%	185 14.7%
무교	75 41.9%	133 39.8%	77 37.7%	18 48.6%	35 21.7%	53 35.1%	42 32.6%	12 18.8%	445 35.3%
기타	1 .6%	4 1.2%	5 2.5%		1 .6%	2 1.3%	2 1.6%		15 1.2%
전체	179 100.0%	334 100.0%	204 100.0%	37 100.0%	161 100.0%	151 100.0%	129 100.0%	64 100.0%	125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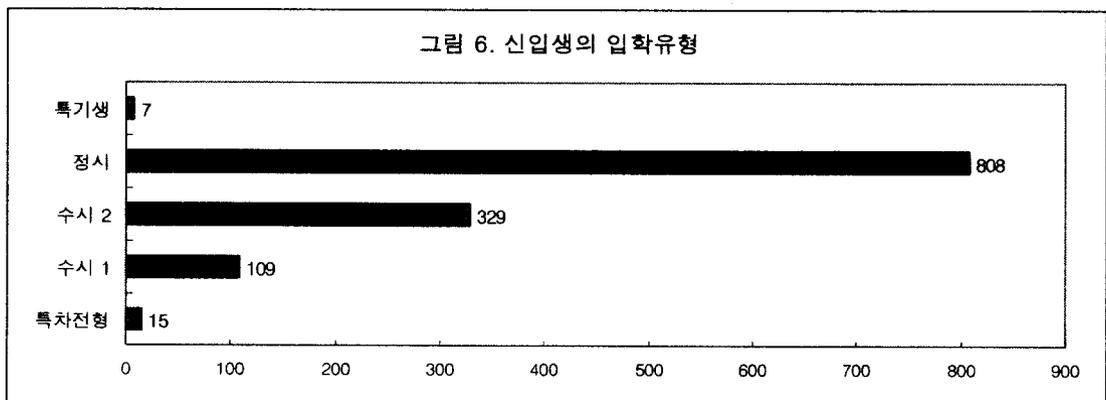


(5) 입학유형

설문에 참여한 신입생들의 입학유형을 분석한 결과, 정시입학이 64.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수시2가 26.2%, 수시1이 8.7%, 특기생 0.6%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차전형이 0.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약학대학 학생들의 정시모집 해당 비율이 78.4%로 다른 단과대학보다 높았고, 수시2는 예술대학이 41.6%로 가장 높았다. 수시1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대학은 공연예술대학으로 15.6%였다.

〈표 6〉 단과대학별 입학유형

	사회과학 대학	인문과학 대학	자연과학 대학	약학 대학	예술 대학	정보과학 대학	디자인 대학	공연예술 대학	전체
특차전형	2 1.1%		2 1.0%		1 .6%				5 .4%
수시1	12 6.7%	46 13.8%	20 9.8%	2 5.4%	3 1.9%	16 10.6%		10 15.6%	109 8.7%
수시2	35 19.6%	72 21.6%	54 26.5%	6 16.2%	67 41.6%	36 23.8%	47 36.7%	12 18.8%	329 26.2%
정시	130 72.6%	210 62.9%	128 62.7%	29 78.4%	90 55.9%	99 65.6%	81 63.3%	41 64.1%	808 64.2%
특기생		6 1.8%						1 1.6%	7 .6%
전체	179 100.0%	334 100.0%	204 100.0%	37 100.0%	161 100.0%	151 100.0%	128 100.0%	64 100.0%	125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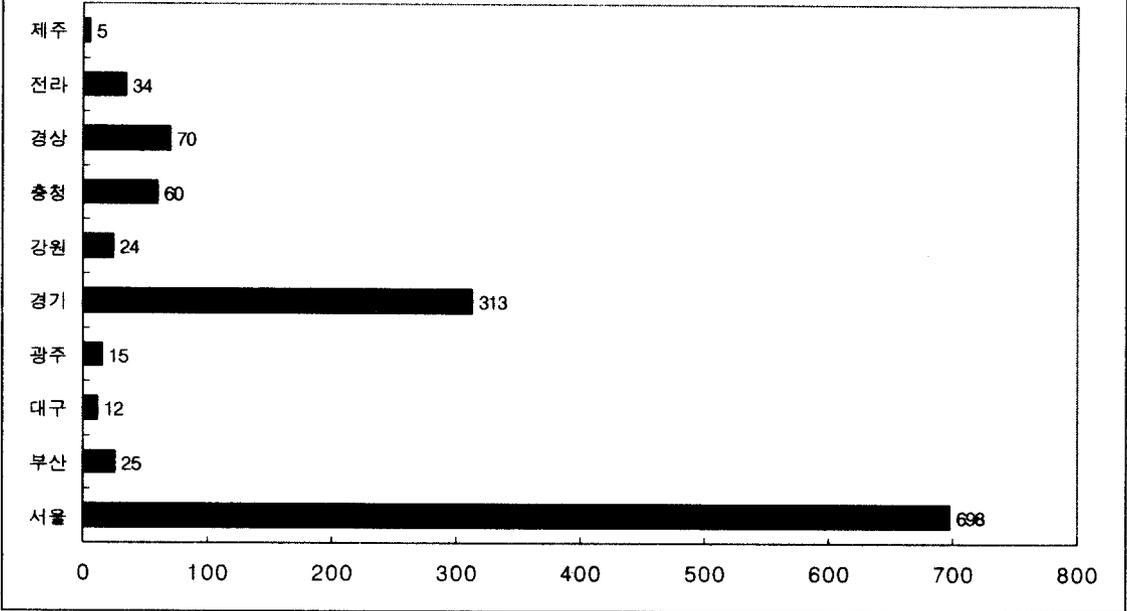
(6) 출신고교지역

신입생들의 출신고교지역은 서울의 경우가 55.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경기 지역인 24.9%로, 전체의 80.5%가 서울·경기지역 고등학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경상 지역이 5.6%, 충청 지역이 4.8%, 전라 지역이 2.7% 순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는 서울지역 고교 출신이 가장 많은 경우가 사회과학대의 62.6%였고, 경기지역 출신이 가장 많은 경우는 공연예술대학의 29.7%였다. 경상도 및 충청도 출신 비율이 많은 대학은 모두 약학대학의 경우로 각각 16.7%와 13.9%를 차지하였다.

〈표 7〉 단과대학별 출신고교지역

	사회과학 대학	인문과학 대학	자연과학 대학	약학 대학	예술 대학	정보과학 대학	디자인 대학	공연예술 대학	전체
서울	112 62.6%	184 55.3%	116 56.9%	13 36.1%	82 50.9%	88 58.7%	66 51.2%	37 57.8%	698 55.6%
부산	1 .6%	6 1.8%	1 .5%	1 2.8%	9 5.6%		6 4.7%	1 1.6%	25 2.0%
대구	1 .6%		2 1.0%		4 2.5%	1 .7%	2 1.6%	2 3.1%	12 1.0%
광주	1 .6%	3 .9%			3 1.9%	4 2.7%	4 3.1%		15 1.2%
경기	38 21.2%	93 27.9%	59 28.9%	6 16.7%	35 21.7%	36 24.0%	27 20.9%	19 29.7%	313 24.9%
강원	3 1.7%	8 2.4%	2 1.0%	1 2.8%	4 2.5%	4 2.7%	2 1.6%		24 1.9%
충청	6 3.4%	15 4.5%	7 3.4%	5 13.9%	9 5.6%	3 2.0%	11 8.5%	4 6.3%	60 4.8%
경상	8 4.5%	15 4.5%	13 6.4%	6 16.7%	9 5.6%	9 6.0%	9 7.0%	1 1.6%	70 5.6%
전라	9 5.0%	7 2.1%	4 2.0%	2 5.6%	6 3.7%	4 2.7%	2 1.6%		34 2.7%
제주		2 .6%		2 5.6%		1 .7%			5 .4%
전체	179 100.0%	333 100.0%	204 100.0%	36 100.0%	161 100.0%	150 100.0%	129 100.0%	64 100.0%	1256 100.0%

그림 7. 신입생의 출신고교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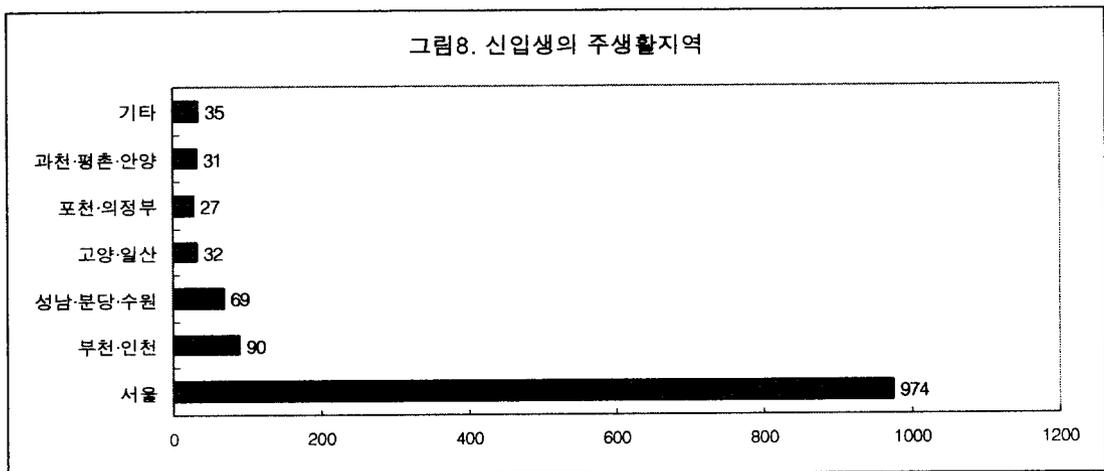


(7) 주생활 지역

신입생들의 주생활지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77.4%가 서울지역에서 주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부천·인천 지역을 주거지로 하고 있는 경우로, 7.2%가 해당되었다. 이외에도 높은 비율은 아니었지만, 성남·분당·수서 지역(5.5%), 고양·일산 지역(2.5%), 과천·평촌·안양 지역(2.5%), 포천·의정부 지역(2.1%)에서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대별로는 약학대학 학생들이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가 89.2%로 가장 높은 비율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충청도 및 경상도 지역의 고등학교 출신자가 가장 많은 약학대학의 학생들이 거주지를 서울로 옮긴 것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여진다.

〈표 8〉 단과대학별 주생활 지역

	사회과학 대학	인문과학 대학	자연과학 대학	약학 대학	예술 대학	정보과학 대학	디자인 대학	공연예술 대학	전체
서울	146 81.6%	248 74.5%	149 73.0%	33 89.2%	127 78.9%	117 77.5%	107 82.9%	47 73.4%	974 77.4%
부천·인천	10 5.6%	26 7.8%	20 9.8%	1 2.7%	11 6.8%	10 6.6%	7 5.4%	5 7.8%	90 7.2%
성남·분당·수원	9 5.0%	21 6.3%	12 5.9%	1 2.7%	12 7.5%	3 2.0%	6 4.7%	5 7.8%	69 5.5%
고양·일산	4 2.2%	7 2.1%	3 1.5%		2 1.2%	9 6.0%	6 4.7%	1 1.6%	32 2.5%
포천·의정부	4 2.2%	12 3.6%	6 2.9%		2 1.2%	2 1.3%	1 .8%		27 2.1%
과천·평촌·안양	2 1.1%	8 2.4%	8 3.9%	1 2.7%	3 1.9%	3 2.0%	2 1.6%	4 6.3%	31 2.5%
기타	4 2.2%	11 3.3%	6 2.9%	1 2.7%	4 2.5%	7 4.6%		2 3.1%	35 2.8%
전체	179 100.0%	333 100.0%	204 100.0%	37 100.0%	161 100.0%	151 100.0%	129 100.0%	64 100.0%	125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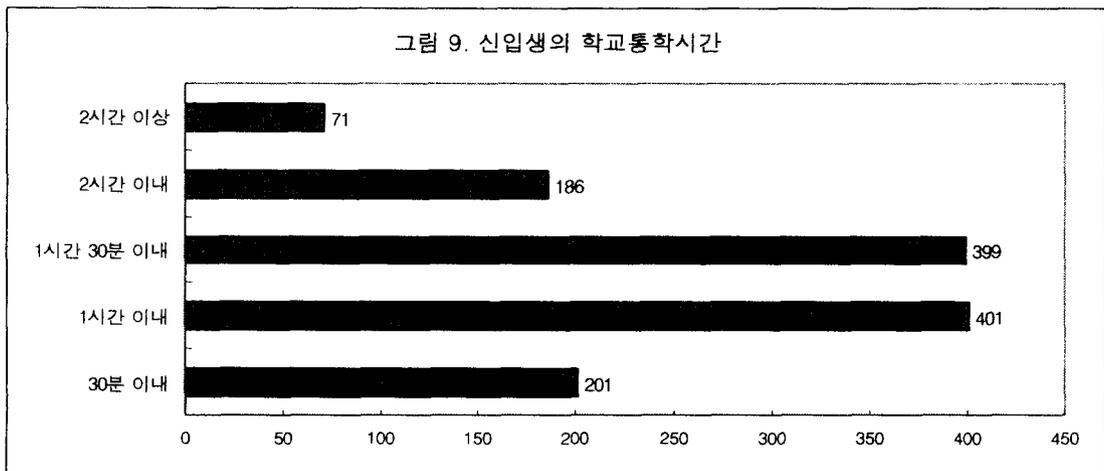


(8) 통학 소요시간

학교 통학시간에 대한 조사결과, 본 대학에 통학하는데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비율은 62.1%였다. 이중 1시간 30분 이내로 소요되는 경우가 31.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는 응답이 14.8%를 차지하였다. 또한 2시간 이상이 걸린다는 응답자도 5.6%가 있었다.

〈표 9〉 단과대학별 학교 통학 시간

	사회과학 대학	인문과학 대학	자연과학 대학	약학 대학	예술 대학	정보과학 대학	디자인 대학	공연예술 대학	전체
30분 이내	24 13.4%	48 14.4%	27 13.2%	6 16.2%	39 24.4%	32 21.2%	17 13.2%	8 12.5%	201 16.0%
1시간 이내	64 35.8%	110 32.9%	67 32.8%	18 48.6%	40 25.0%	40 26.5%	45 34.9%	17 26.6%	401 31.9%
1시간 30분 이내	56 31.3%	104 31.1%	66 32.4%	9 24.3%	54 33.8%	48 31.8%	41 31.8%	21 32.8%	399 31.7%
2시간 이내	24 13.4%	53 15.9%	35 17.2%	4 10.8%	17 10.6%	21 13.9%	18 14.0%	14 21.9%	186 14.8%
2시간 이상	11 6.1%	19 5.7%	9 4.4%		10 6.3%	10 6.6%	8 6.2%	4 6.3%	71 5.6%
전체	179 100.0%	334 100.0%	204 100.0%	37 100.0%	160 100.0%	151 100.0%	129 100.0%	64 100.0%	125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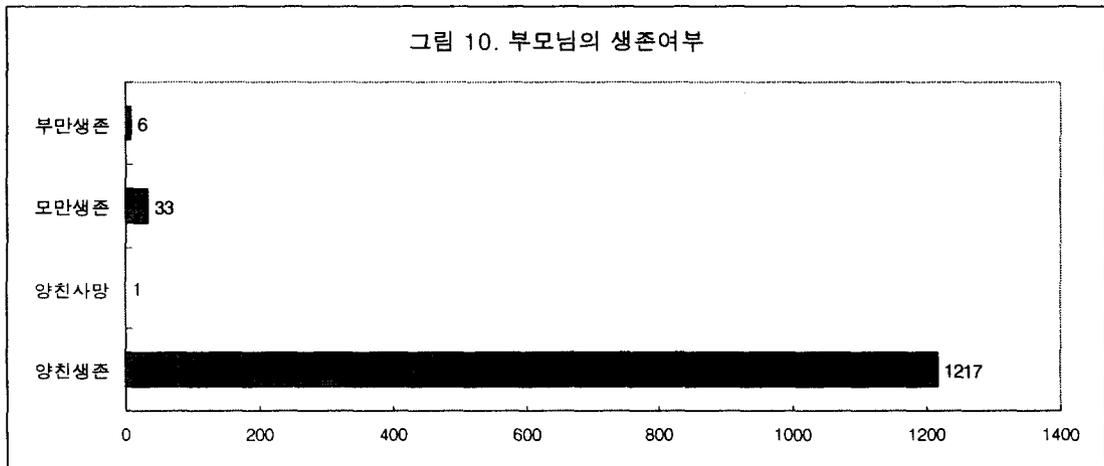
2. 신입생의 환경특성

(1) 부모님의 생존 여부

부모님의 생존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는, 양친 모두 생존하는 경우가 전체의 96.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어머니만 생존하는 경우가 1257명 중 33명으로 2.6%였고, 아버지만 생존하는 경우가 1257명 중 6명으로 0.5%였다. 양친 모두 사망한 경우도 1명(0.1%)이 있었다.

〈표 10〉 단과대학별 부모 생존 여부

	사회과학 대학	인문과학 대학	자연과학 대학	약학 대학	예술 대학	정보과학 대학	디자인 대학	공연예술 대학	전체
양친생존	173 96.6%	321 96.4%	201 98.5%	36 97.3%	154 96.3%	146 96.7%	127 98.4%	59 92.2%	1217 96.8%
양친사망		1 .3%							1 .1%
모만생존	5 2.8%	8 2.4%	3 1.5%	1 2.7%	4 2.5%	5 3.3%	2 1.6%	5 7.8%	33 2.6%
부만생존	1 .6%	3 .9%			2 1.3%				6 .5%
전체	179 100.0%	333 100.0%	204 100.0%	37 100.0%	160 100.0%	151 100.0%	129 100.0%	64 100.0%	125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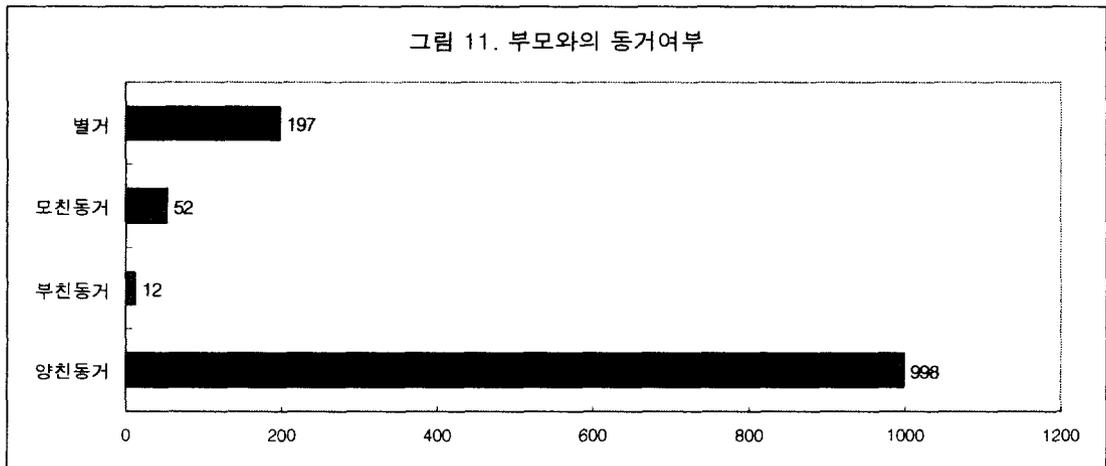
(2) 부모와의 동거여부

부모님과의 동거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는 양친과 동거하고 있는 경우가 79.3%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양친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로 15.6%가 해당되었는데, 이 경우는 지방에서 본 대학교로 입학한 경우와 통학 거리가 멀어서 주거지를 옮긴 경우가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어머니와 생활하는 경우는 4.1%였고, 아버지와 생활하는 경우는 가장 적은 비율인 1%였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양친과 동거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경우는 약학대학의 경우로 51.4%가 해당되었다. 이는 지방 고등학교 출신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경우가 약학대학의 경우였던 점과 관련 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1〉 단과대학별 부모와의 동거여부

	사회과학 대학	인문과학 대학	자연과학 대학	약학 대학	예술 대학	정보과학 대학	디자인 대학	공연예술 대학	전체
양친과 동거	148 82.7%	268 80.2%	179 87.7%	19 51.4%	123 76.4%	123 81.5%	94 72.9%	44 68.8%	998 79.3%
부친과 동거		3 .9%	1 .5%		2 1.2%	1 .7%	3 2.3%	2 3.1%	12 1.0%
모친과 동거	6 3.4%	17 5.1%	4 2.0%	2 5.4%	4 2.5%	8 5.3%	4 3.1%	7 10.9%	52 4.1%
별거	25 14.0%	46 13.8%	20 9.8%	16 43.2%	32 19.9%	19 12.6%	28 21.7%	11 17.2%	197 15.6%
전체	179 100.0%	334 100.0%	204 100.0%	37 100.0%	161 100.0%	151 100.0%	129 100.0%	64 100.0%	125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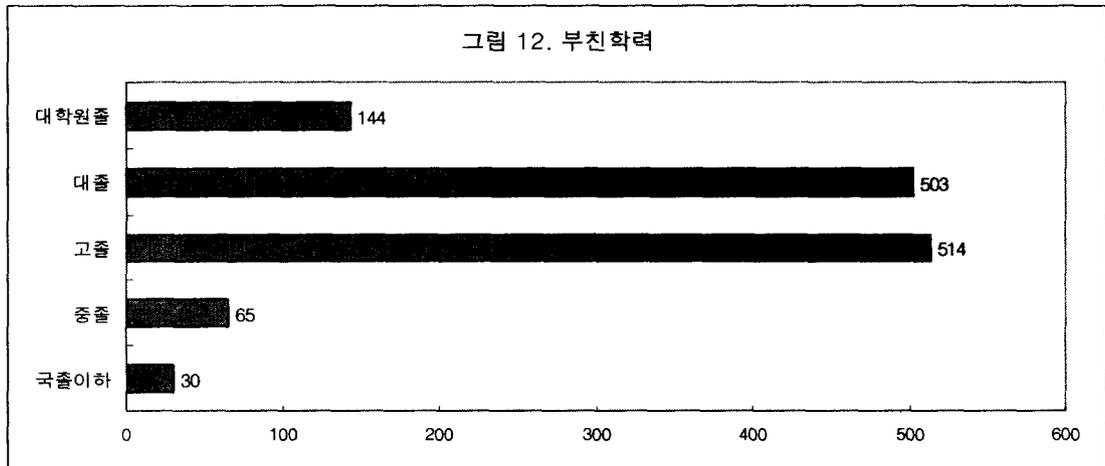


(3) 부친 학력

부친학력에 대한 조사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와 대학교 졸업인 경우가 각각 40.9%와 40%로 전체의 80.9%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대학원졸이 11.5%, 중졸이 5.2%, 국졸이하가 2.4%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부친이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비율이 가장 높은 단과대학은 약학대학으로 78.%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공연예술대학으로 61%가 해당되었다.

〈표 12〉 단과대학별 부친 학력

	사회과학 대학	인문과학 대학	자연과학 대학	약학 대학	예술 대학	정보과학 대학	디자인 대학	공연예술 대학	전체
국졸이하	6 3.4%	11 3.3%	4 2.0%		5 3.1%	2 1.3%	1 .8%	1 1.6%	30 2.4%
중졸	5 2.8%	25 7.5%	11 5.4%		13 8.2%	7 4.6%	4 3.1%		65 5.2%
고졸	79 44.4%	153 45.8%	86 42.2%	8 21.6%	49 30.8%	62 41.1%	53 41.1%	24 37.5%	514 40.9%
대졸	75 42.1%	107 32.0%	84 41.2%	24 64.9%	60 37.7%	69 45.7%	54 41.9%	30 46.9%	503 40.0%
대학원졸	13 7.3%	38 11.4%	19 9.3%	5 13.5%	32 20.1%	11 7.3%	17 13.2%	9 14.1%	144 11.5%
전체	178 100.0%	334 100.0%	204 100.0%	37 100.0%	159 100.0%	151 100.0%	129 100.0%	64 100.0%	125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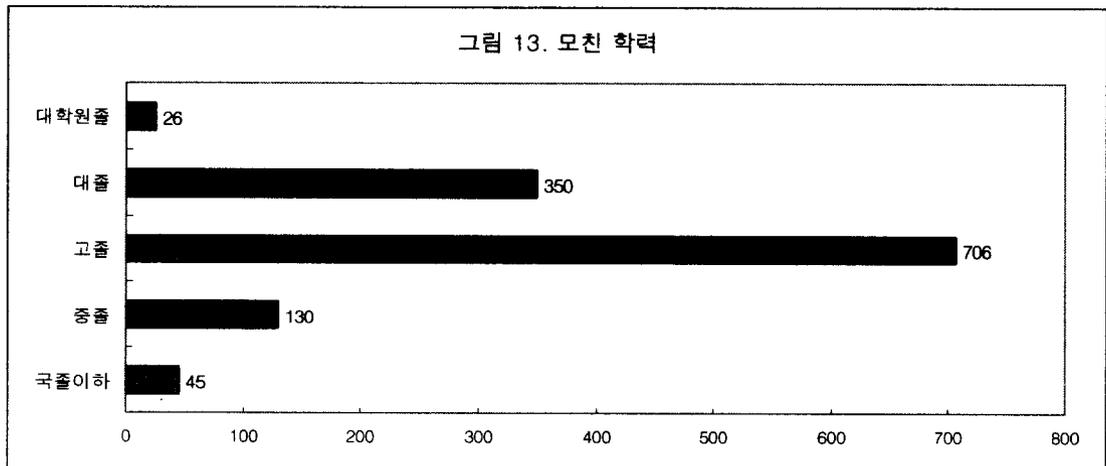


(4) 모친 학력

모친학력에 대한 조사에서는 부친학력에서와 같이 고등학교 졸업의 경우와 대학 졸업의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비율은 각각 56.2%와 27.8%로 부친의 경우와 유사하게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중졸이 10.3%, 국졸이하가 3.6%, 대학원졸이 2.1% 순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모친의 학력이 대학교 졸업인 경우가 가장 많은 대학은 약학대학으로(48.6%) 부친의 경우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표 13〉 단과대학별 모친 학력

	사회과학 대학	인문과학 대학	자연과학 대학	약학 대학	예술 대학	정보과학 대학	디자인 대학	공연예술 대학	전체
국졸이하	7 3.9%	17 5.1%	7 3.4%		5 3.1%	6 4.0%	3 2.3%		45 3.6%
중졸	23 12.8%	38 11.4%	21 10.3%	2 5.4%	17 10.6%	14 9.3%	9 7.0%	6 9.4%	130 10.3%
고졸	106 59.2%	191 57.4%	118 57.8%	17 45.9%	70 43.8%	97 64.2%	72 55.8%	35 54.7%	706 56.2%
대졸	43 24.0%	80 24.0%	53 26.0%	18 48.6%	61 38.1%	33 21.9%	41 31.8%	21 32.8%	350 27.8%
대학원졸		7 2.1%	5 2.5%		7 4.4%	1 .7%	4 3.1%	2 3.1%	26 2.1%
전체	179 100.0%	333 100.0%	204 100.0%	37 100.0%	160 100.0%	151 100.0%	129 100.0%	64 100.0%	125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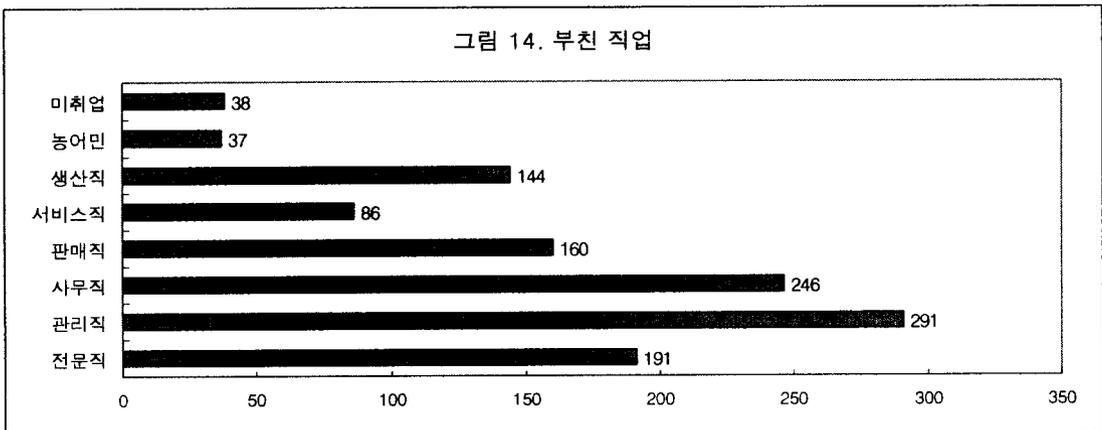
(5) 부친 직업

신입생들의 부친직업에 대한 비율은 관리직과 사무직이 각각 24.4%와 20.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전문직과 판매직이 각각 16.0%와 13.4%를 차지하였다. 농어민이나 미취업자라는 응답은 3.1%와 3.2%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부친직업으로 전문직을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한 경우는 약학대학으로 31.4%였으며, 관리직에 높은 비율로 응답한 경우는 디자인대학과 약학대학으로 각각 28.8%와 28.6%를 차지하였다.

〈표 14〉 단과대학별 부친 직업

	사회과학 대학	인문과학 대학	자연과학 대학	약학 대학	예술 대학	정보과학 대학	디자인 대학	공연예술 대학	전체
전문직	23 13.9%	38 12.0%	29 14.7%	11 31.4%	39 26.0%	16 11.0%	20 16.0%	15 25.0%	191 16.0%
관리직	44 26.7%	74 23.4%	40 20.3%	10 28.6%	40 26.7%	32 22.1%	36 28.8%	15 25.0%	291 24.4%
사무직	33 20.0%	70 22.2%	46 23.4%	6 17.1%	23 15.3%	38 26.2%	18 14.4%	12 20.0%	246 20.6%
판매직	22 13.3%	52 16.5%	22 11.2%	3 8.6%	17 11.3%	19 13.1%	16 12.8%	9 15.0%	160 13.4%
서비스직	9 5.5%	16 5.1%	22 11.2%		10 6.7%	10 6.9%	15 12.0%	4 6.7%	86 7.2%
생산직	20 12.1%	40 12.7%	28 14.2%	3 8.6%	18 12.0%	18 12.4%	13 10.4%	4 6.7%	144 12.1%
농어민	9 5.5%	15 4.7%	3 1.5%	1 2.9%	1 .7%	5 3.4%	3 2.4%		37 3.1%
미취업	5 3.0%	11 3.5%	7 3.6%	1 2.9%	2 1.3%	7 4.8%	4 3.2%	1 1.7%	38 3.2%
전체	165 100.0%	316 100.0%	197 100.0%	35 100.0%	150 100.0%	145 100.0%	125 100.0%	60 100.0%	1193 100.0%

그림 14. 부친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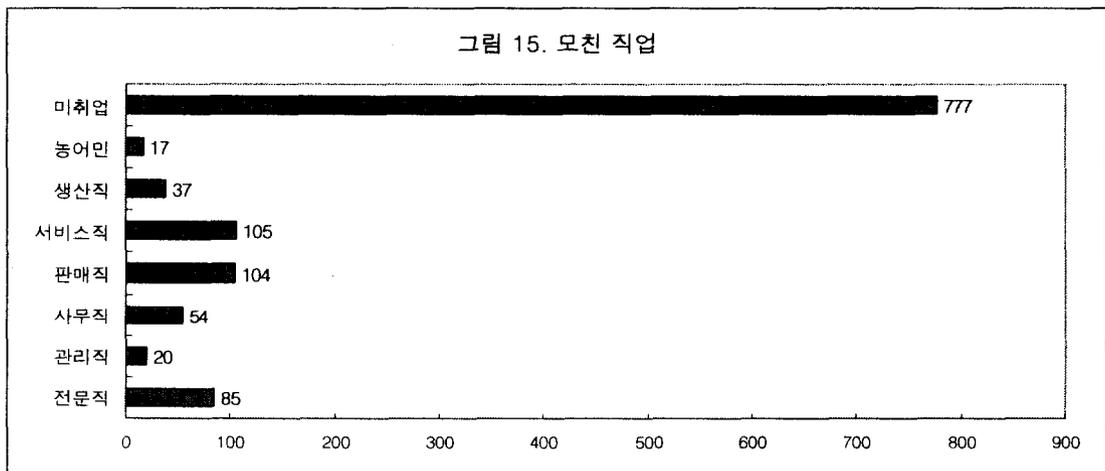


(6) 모친 직업

모친직업에 대한 조사에서는 부친직업에 대한 결과와는 달리 미취업이라는 응답이 64.8%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서비스직, 판매직이 각각 8.8%, 8.7%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모친의 미취업 비율이 가장 높은 단과대학은 사회과학대학으로 71.7%의 비율을 나타냈다. 반면에 모친의 전문직 취업 비율이 가장 높은 단과대학은 약학대학으로 소속 학생의 20%를 차지하였다.

〈표 15〉 단과대학별 모친 직업

	사회과학 대학	인문과학 대학	자연과학 대학	약학 대학	예술 대학	정보과학 대학	디자인 대학	공연예술 대학	전체
전문직	8 4.8%	14 4.4%	11 5.6%	7 20.0%	21 13.9%	4 2.7%	11 8.7%	9 15.3%	85 7.1%
관리직	4 2.4%	7 2.2%	2 1.0%		1 .7%	3 2.1%	3 2.4%		20 1.7%
사무직	6 3.6%	13 4.1%	12 6.1%	5 14.3%	8 5.3%	4 2.7%	4 3.1%	2 3.4%	54 4.5%
판매직	12 7.2%	26 8.2%	14 7.1%	3 8.6%	13 8.6%	14 9.6%	15 11.8%	7 11.9%	104 8.7%
서비스직	12 7.2%	24 7.5%	17 8.7%		18 11.9%	12 8.2%	14 11.0%	8 13.6%	105 8.8%
생산직	1 .6%	12 3.8%	9 4.6%	2 5.7%	2 1.3%	9 6.2%	2 1.6%		37 3.1%
농어민	4 2.4%	8 2.5%	1 .5%			3 2.1%	1 .8%		17 1.4%
미취업	119 71.7%	215 67.4%	130 66.3%	18 51.4%	88 58.3%	97 66.4%	77 60.6%	33 55.9%	777 64.8%
전체	166 100.0%	319 100.0%	196 100.0%	35 100.0%	151 100.0%	146 100.0%	127 100.0%	59 100.0%	119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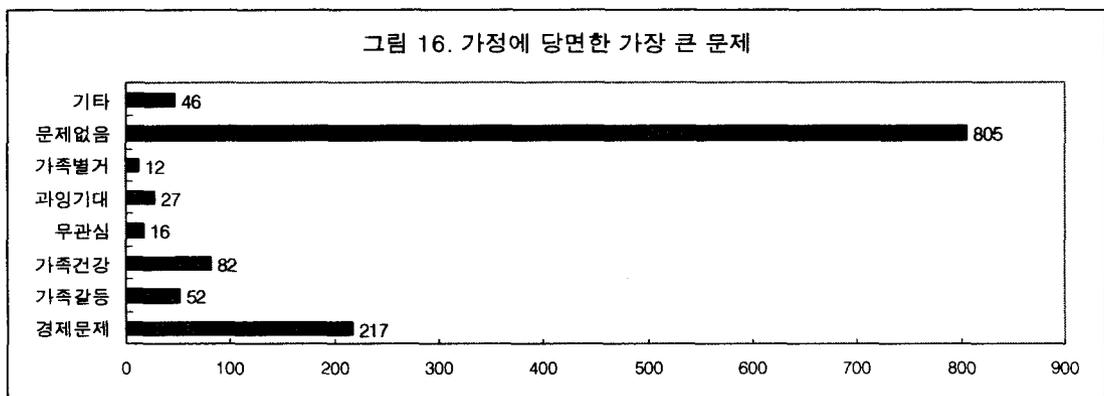


(7) 가정에 당면한 가장 큰 문제

가정에 당면한 문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응답이 전체의 6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나머지 응답 중에는 전체의 17.3%가 '경제문제'를 큰 문제로 지적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많이 대면하게 되는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가족들의 '건강 문제'가 6.5%, 가족 간의 '갈등 문제'가 4.1%를 차지하였다. 단과대학 중 경제문제를 가정의 큰 문제점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경우는 공연예술대학으로 32.8%였으며, 가정에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경우는 약학대학으로 75.7%가 해당되었다.

〈표 16〉 가정에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사회과학 대학	인문과학 대학	자연과학 대학	약학 대학	예술 대학	정보과학 대학	디자인 대학	공연예술 대학	전체
경제문제	29 16.2%	56 16.8%	31 15.2%	3 8.1%	25 15.7%	24 15.9%	28 21.7%	21 32.8%	217 17.3%
가족 간의 갈등	8 4.5%	13 3.9%	7 3.4%	1 2.7%	8 5.0%	11 7.3%	4 3.1%		52 4.1%
가족의 건강	14 7.8%	23 6.9%	12 5.9%	4 10.8%	5 3.1%	15 9.9%	7 5.4%	2 3.1%	82 6.5%
가족의 무관심	1 .6%	5 1.5%	2 1.0%		3 1.9%	3 2.0%	1 .8%	1 1.6%	16 1.3%
가족의 과잉기대	3 1.7%	6 1.8%	8 3.9%	1 2.7%	3 1.9%	2 1.3%	2 1.6%	2 3.1%	27 2.1%
가족의 별거	2 1.1%	2 .6%			1 .6%	1 .7%	4 3.1%	2 3.1%	12 1.0%
문제없음	117 65.4%	221 66.2%	134 65.7%	28 75.7%	103 64.8%	93 61.6%	79 61.2%	30 46.9%	805 64.0%
기타	5 2.8%	8 2.4%	10 4.9%		11 6.9%	2 1.3%	4 3.1%	6 9.4%	46 3.7%
전체	179 100.0%	334 100.0%	204 100.0%	37 100.0%	159 100.0%	151 100.0%	129 100.0%	64 100.0%	125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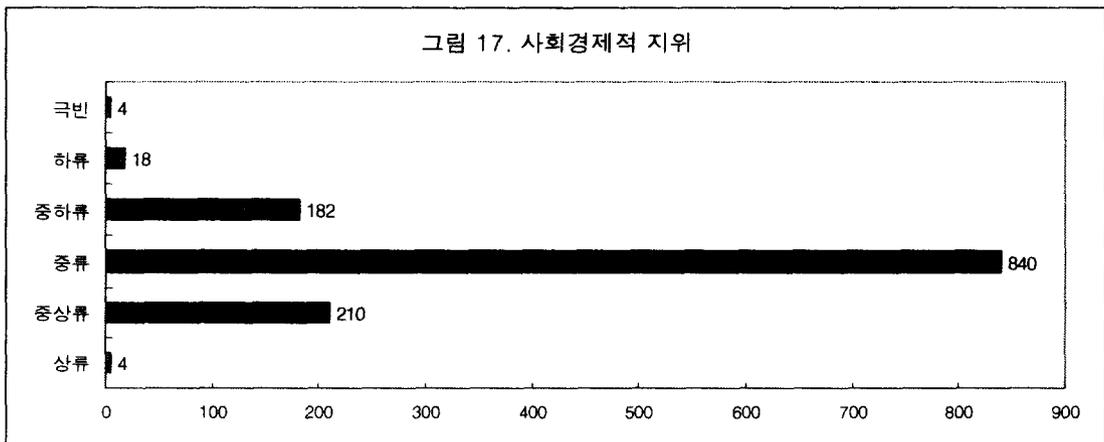


(8)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 경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의 66.8%가 중류라고 응답하여 자신이 중간 정도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중상류가 16.7%, 중하류가 14.5%로 나타나 98% 이상의 학생이 자신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중류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하류로 인식하는 학생은 응답자 1258명 중 18명으로 1.4%였고, 극빈으로 인식하는 학생은 4명으로 0.3%였다.

〈표 17〉 단과대학별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

	사회과학 대학	인문과학 대학	자연과학 대학	약학 대학	예술 대학	정보과학 대학	디자인 대학	공연예술 대학	전체
상류		1 .3%	1 .5%		2 1.2%				4 .3%
중상류	23 12.8%	43 12.9%	46 22.5%	6 16.2%	38 23.6%	27 17.9%	21 16.3%	6 9.5%	210 16.7%
중류	129 72.1%	229 68.6%	127 62.3%	27 73.0%	94 58.4%	98 64.9%	89 69.0%	47 74.6%	840 66.8%
중하류	25 14.0%	52 15.6%	27 13.2%	4 10.8%	25 15.5%	21 13.9%	18 14.0%	10 15.9%	182 14.5%
하류	1 .6%	7 2.1%	3 1.5%		2 1.2%	4 2.6%	1 .8%		18 1.4%
극빈	1 .6%	2 .6%				1 .7%			4 .3%
전체	179 100.0%	334 100.0%	204 100.0%	37 100.0%	161 100.0%	151 100.0%	129 100.0%	63 100.0%	125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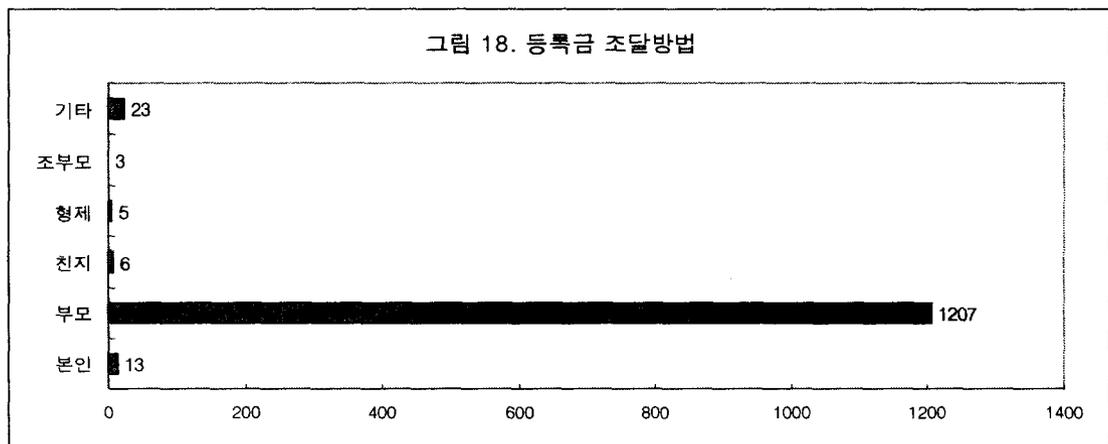


(9) 등록금조달방법

등록금 조달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의 96.0%가 '부모로부터 조달' 한다는 대답을 하여 등록금에 대한 부모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본인이 조달한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 1257명 중 13명으로 1.0% 정도로 나타났다. 그 외에 친지나 형제, 조부모로부터 조달한다는 응답은 극소수인 6명, 5명, 3명 정도로 각각 0.5%, 0.4%, 0.2%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단과대학별로는 약대 학생들 전원(100.0%)이 부모로부터 등록금을 조달한다고 응답하여 해서 가장 높은 부모 의존 비율을 보였다.

〈표 18〉 단과대학별 등록금 조달방법

	사회과학 대학	인문과학 대학	자연과학 대학	약학 대학	예술 대학	정보과학 대학	디자인 대학	공연예술 대학	전체
본인	2 1.1%	4 1.2%	1 .5%		3 1.9%	2 1.3%	1 .8%		13 1.0%
부모	172 96.6%	316 94.9%	199 97.5%	37 100.0%	152 94.4%	145 96.0%	124 96.1%	62 96.9%	1207 96.0%
친지	1 .6%	1 .3%			1 .6%		2 1.6%	1 1.6%	6 .5%
형제,자매	2 1.1%	1 .3%					1 .8%	1 1.6%	5 .4%
조부모		2 .6%				1 .7%			3 .2%
기타	1 .6%	9 2.7%	4 2.0%		5 3.1%	3 2.0%	1 .8%		23 1.8%
전체	178 100.0%	333 100.0%	204 100.0%	37 100.0%	161 100.0%	151 100.0%	129 100.0%	64 100.0%	125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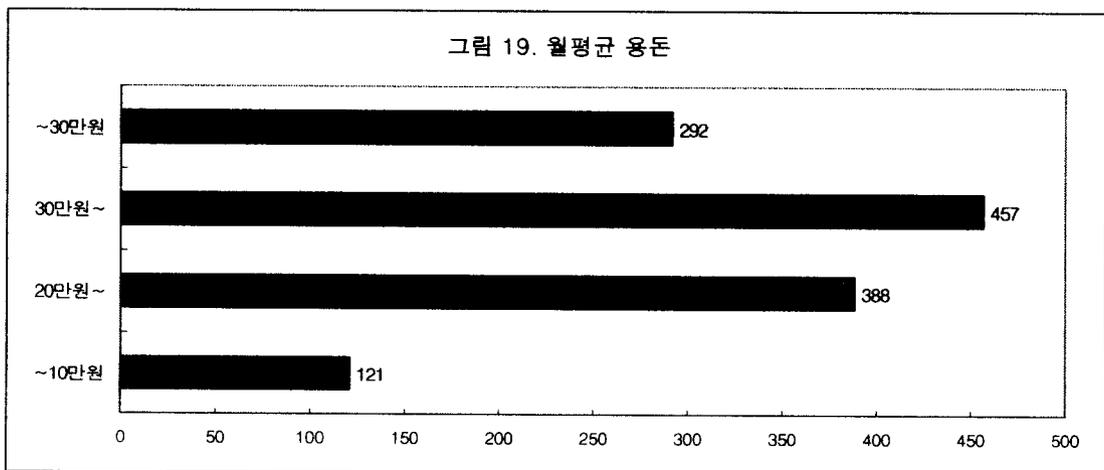


(10) 월평균 용돈

신입생들의 월평균 용돈에 대한 질문에서는 '월 30만원 미만'으로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36.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월 20만원 미만'으로 30.8%였다. 한편, '월 30만원 이상'으로 응답한 경우는 23.2%를 차지하였다. 월 30만원 이상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은 단과대학은 약학대학으로 48.6%로 조사되었으며, 뒤를 이어 예술대학, 디자인대학, 공연예술대학이 각각 32.5%, 31.0%, 28.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단과대학별 월평균 용돈

	사회과학 대학	인문과학 대학	자연과학 대학	약학 대학	예술 대학	정보과학 대학	디자인 대학	공연예술 대학	전체
10만원 이하	18 10.1%	35 10.5%	17 8.3%	2 5.4%	17 10.6%	17 11.3%	8 6.2%	7 10.9%	121 9.6%
20만원 미만	53 29.6%	120 35.9%	70 34.3%	7 18.9%	39 24.4%	51 33.8%	30 23.3%	18 28.1%	388 30.8%
30만원 미만	69 38.5%	122 36.5%	75 36.8%	10 27.0%	52 32.5%	57 37.7%	51 39.5%	21 32.8%	457 36.3%
30만원 이상	39 21.8%	57 17.1%	42 20.6%	18 48.6%	52 32.5%	26 17.2%	40 31.0%	18 28.1%	292 23.2%
전체	179 100.0%	334 100.0%	204 100.0%	37 100.0%	160 100.0%	151 100.0%	129 100.0%	64 100.0%	1258 100.0%



3. 대학 및 전공에 관한 의견

(1) 본교 선택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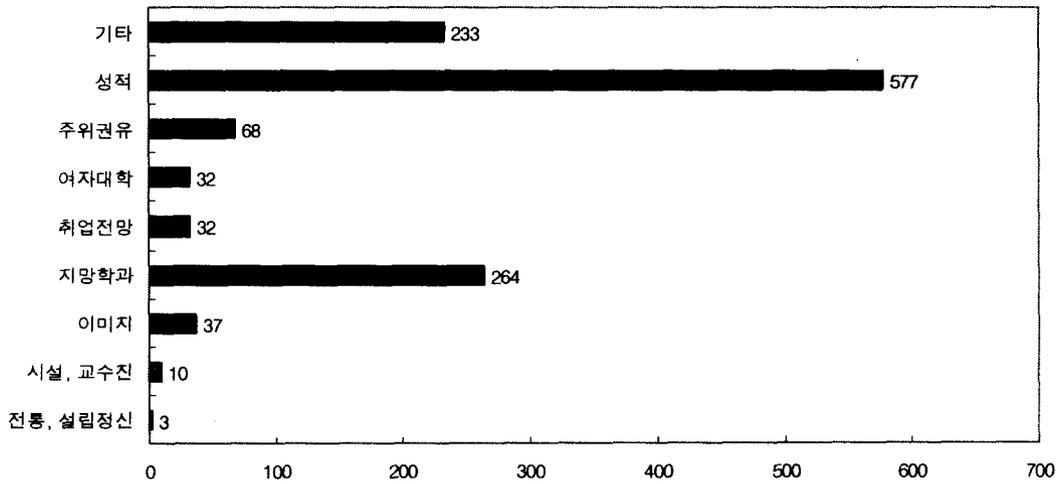
본교 선택동기에 대한 조사에서는 '성적에 따른 선택'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 중 45.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지망학과가 좋아서' 선택하였다는 응답이 21.0%로 조사되었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사회과학대학, 인문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정보과학대학 등 4개 대학은 50% 이상의 학생들이 성적에 따라서 본교를 선택하였다는 응답을 한 반면, 약학대학, 디자인대학, 공연예술대학의 학생들은 지망학과가 좋아서 선택하였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약학대학의 경우에는 취업 전망을 고려하여 본교를 선택하였다는 응답율이 18.9%로 다른 단과대학에 비하여 월등히 높았고, 공연예술대학의 경우에는 주위의 권유로 본교를 선택했다는 응답의 비율이 10.9%로 역시 다른 단과대학에 비하여 두드러지게 높았다. 공연예술대학에서는 또한 시설이나 교수진을 고려해서 본교를 선택하였다는 응답도 9.4%를 차지하여 다른 단과대학과 대조를 이루었다. 한편, 전통이나, 본교의 이미지, 또는 여자대학이라는 항목을 본교 선택의 이유로 응답한 비율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았다.

〈표 20〉 단과대학별 본교 선택동기

	사회과학 대학	인문과학 대학	자연과학 대학	약학 대학	예술 대학	정보과학 대학	디자인 대학	공연예술 대학	전체
전통,설립정신					2 1.3%			1 1.6%	3 .2%
시설,교수진		2 .6%			1 .6%		1 .8%	6 9.4%	10 .8%
이미지	6 3.4%	13 3.9%	3 1.5%		9 5.6%	3 2.0%	1 .8%	2 3.1%	37 2.9%
지망학과	24 13.4%	37 11.1%	44 21.8%	16 43.2%	30 18.8%	37 24.5%	52 40.3%	24 37.5%	264 21.0%
취업전망	3 1.7%	4 1.2%		7 18.9%	1 .6%	8 5.3%	8 6.2%	1 1.6%	32 2.5%
여자대학	1 .6%	13 3.9%	7 3.5%	1 2.7%	6 3.8%	2 1.3%		2 3.1%	32 2.5%
주위권유	8 4.5%	18 5.4%	15 7.4%		11 6.9%	4 2.6%	5 3.9%	7 10.9%	68 5.4%
성적	112 62.6%	190 56.9%	104 51.5%	11 29.7%	43 26.9%	82 54.3%	31 24.0%	4 6.3%	577 45.9%
기타	25 14.0%	57 17.1%	29 14.4%	2 5.4%	57 35.6%	15 9.9%	31 24.0%	17 26.6%	233 18.6%
전체	179 100.0%	334 100.0%	202 100.0%	37 100.0%	160 100.0%	151 100.0%	129 100.0%	64 100.0%	1256 100.0%

그림 20. 본교 선택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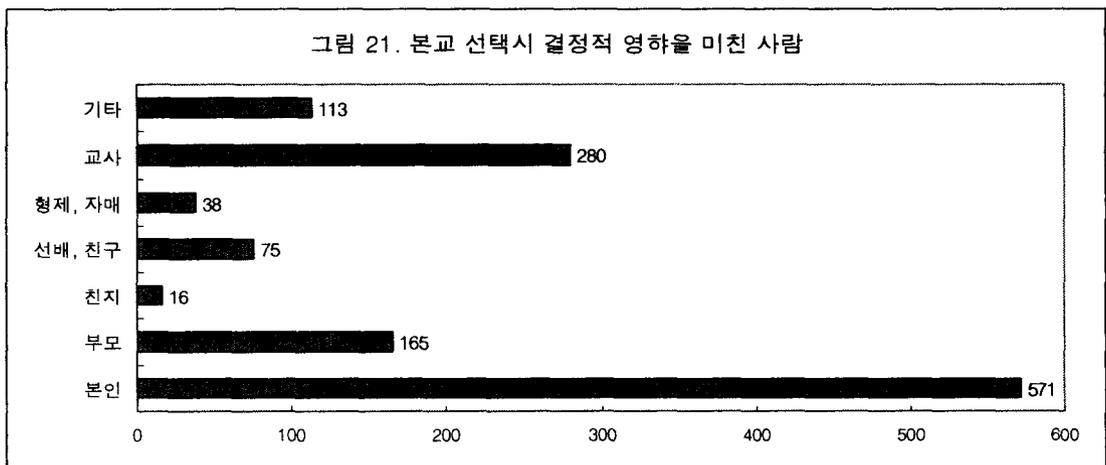


(2) 본교 선택 시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람

본교 선택 시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에 대한 질문에서는 '본인'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 중 45.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그 다음으로는 '교사'가 22.3%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단과대학별로는 약학대학의 경우 본교 선택에 부모님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 비율이 45.9%로 다른 단과 대학에 비하여 매우 높았다. 또한 디자인대학의 경우 교사가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 비율이 34.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21〉 본교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람

	사회과학 대학	인문과학 대학	자연과학 대학	약학 대학	예술 대학	정보과학 대학	디자인 대학	공연예술 대학	전체
본인	82 45.8%	165 49.4%	86 42.4%	12 32.4%	75 46.6%	76 50.3%	49 38.0%	26 40.6%	571 45.4%
부모	23 12.8%	33 9.9%	36 17.7%	17 45.9%	18 11.2%	20 13.2%	9 7.0%	9 14.1%	165 13.1%
친지	3 1.7%	3 .9%	3 1.5%	1 2.7%	2 1.2%	2 1.3%	2 1.6%		16 1.3%
선배, 친구	12 6.7%	21 6.3%	12 5.9%		7 4.3%	5 3.3%	13 10.1%	5 7.8%	75 6.0%
형제, 자매	8 4.5%	16 4.8%	4 2.0%		1 .6%	7 4.6%	1 .8%	1 1.6%	38 3.0%
교사	36 20.1%	67 20.1%	49 24.1%	3 8.1%	35 21.7%	31 20.5%	44 34.1%	15 23.4%	280 22.3%
기타	15 8.4%	29 8.7%	13 6.4%	4 10.8%	23 14.3%	10 6.6%	11 8.5%	8 12.5%	113 9.0%
전체	179 100.0%	334 100.0%	203 100.0%	37 100.0%	161 100.0%	151 100.0%	129 100.0%	64 100.0%	125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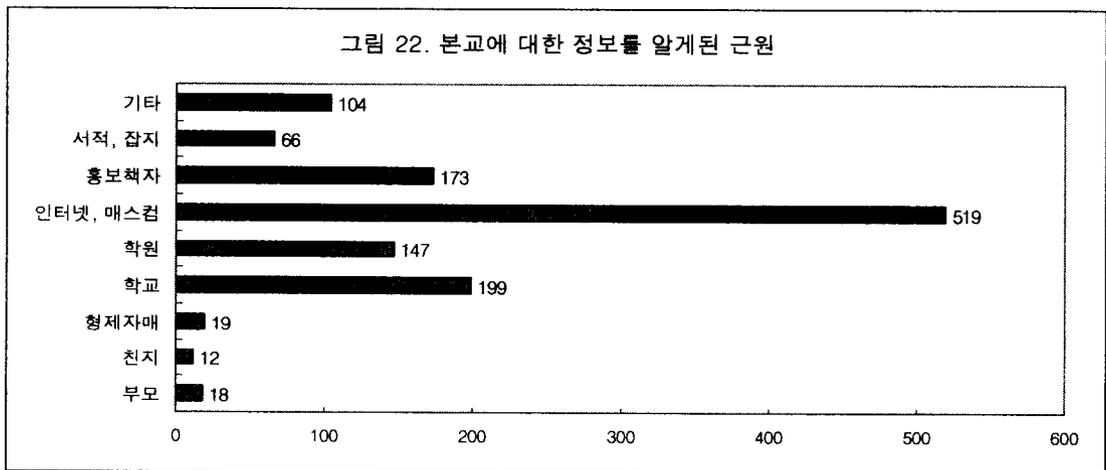


(3) 본교에 대한 정보를 알게된 근원

본교에 대한 정보를 알게된 근원에 대한 질문에서는 ‘인터넷, 매스컴’을 통해서라는 응답이 전체의 41.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학교’ 15.8%, ‘홍보책자’ 13.8%, ‘학원’ 11.7%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22〉 본교에 대한 정보 근원

	사회과학 대학	인문과학 대학	자연과학 대학	약학 대학	예술 대학	정보과학 대학	디자인 대학	공연예술 대학	전체
부모	2 1.1%		6 3.0%	1 2.7%	3 1.9%	3 2.0%		3 4.8%	18 1.4%
친지	1 .6%	4 1.2%	1 .5%		1 .6%	2 1.3%	1 .8%	2 3.2%	12 1.0%
형제자매	3 1.7%	5 1.5%	4 2.0%		2 1.2%	5 3.3%			19 1.5%
학교	32 17.9%	62 18.6%	32 15.8%	3 8.1%	21 13.0%	22 14.6%	15 11.6%	12 19.0%	199 15.8%
학원	7 3.9%	8 2.4%	17 8.4%	5 13.5%	33 20.5%	5 3.3%	63 48.8%	9 14.3%	147 11.7%
인터넷,매스컴	80 44.7%	159 47.6%	81 39.9%	17 45.9%	56 34.8%	77 51.0%	30 23.3%	19 30.2%	519 41.3%
홍보책자	34 19.0%	56 16.8%	38 18.7%	5 13.5%	12 7.5%	18 11.9%	5 3.9%	5 7.9%	173 13.8%
서적,잡지	4 2.2%	16 4.8%	8 3.9%	1 2.7%	20 12.4%	7 4.6%	9 7.0%	1 1.6%	66 5.3%
기타	16 8.9%	24 7.2%	16 7.9%	5 13.5%	13 8.1%	12 7.9%	6 4.7%	12 19.0%	104 8.3%
전체	179 100.0%	334 100.0%	203 100.0%	37 100.0%	161 100.0%	151 100.0%	129 100.0%	63 100.0%	125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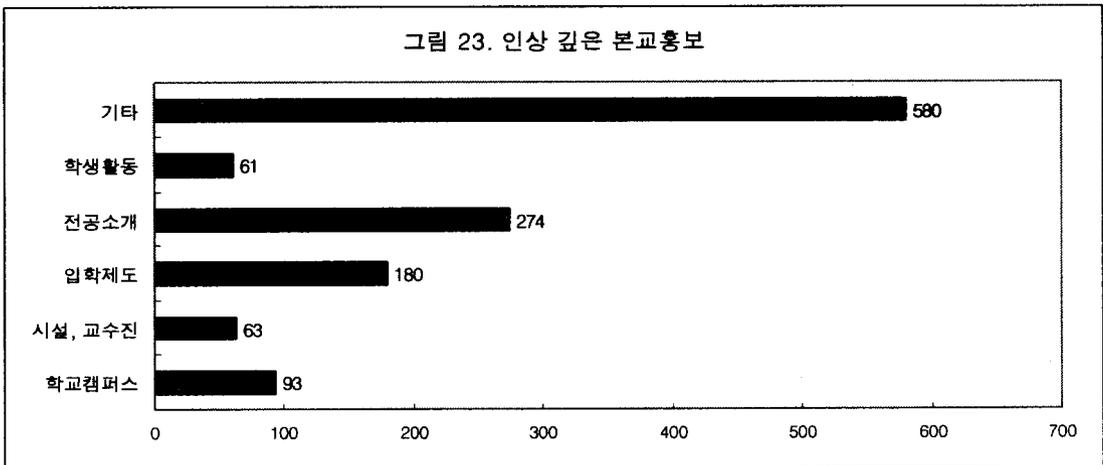


(4) 본교 홍보내용 중 인상깊었던 것

본교에 대한 홍보 중 인상 깊었던 내용에 대한 질문에는 '기타' 항목에 응답한 비율이 46.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전공소개 21.9%, 입학제도 14.4% 순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두드러진 경향을 보인 경우는 디자인대학과 약학대학으로, 이들 두 개 대학의 학생들은 전공소개가 가장 인상 깊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대학에 비하여 높았다(각각 42.6%, 33.3%). 또한 공연예술대학의 경우, 시설과 교수진에 대한 홍보와 전공소개에 대한 홍보가 인상 깊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7.5%와 27%로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였다.

〈표 23〉 인상깊었던 본교 홍보

	사회과학 대학	인문과학 대학	자연과학 대학	약학 대학	예술 대학	정보과학 대학	디자인 대학	공연예술 대학	전체
학교캠퍼스	15 8.4%	23 6.9%	8 3.9%		17 10.6%	10 6.7%	15 11.6%	5 7.9%	93 7.4%
시설,교수진	5 2.8%	12 3.6%	8 3.9%		7 4.3%	4 2.7%	16 12.4%	11 17.5%	63 5.0%
입학제도	30 16.9%	44 13.3%	40 19.6%	5 13.9%	26 16.1%	24 16.1%	9 7.0%	2 3.2%	180 14.4%
전공소개	25 14.0%	56 16.9%	53 26.0%	12 33.3%	21 13.0%	35 23.5%	55 42.6%	17 27.0%	274 21.9%
학생활동	13 7.3%	15 4.5%	8 3.9%		6 3.7%	6 4.0%	5 3.9%	8 12.7%	61 4.9%
기타	90 50.6%	182 54.8%	87 42.6%	19 52.8%	84 52.2%	70 47.0%	29 22.5%	20 31.7%	580 46.4%
전체	178 100.0%	332 100.0%	204 100.0%	36 100.0%	161 100.0%	149 100.0%	129 100.0%	63 100.0%	125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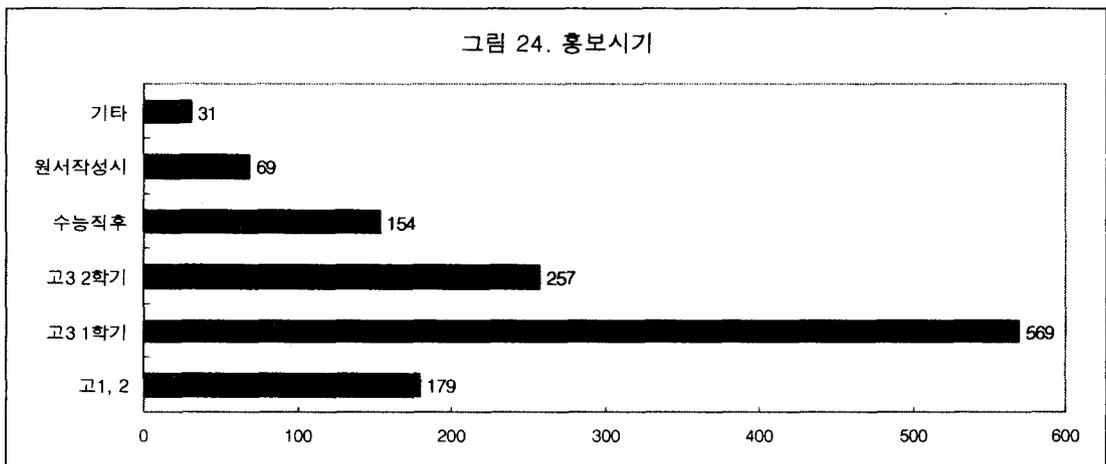


(5) 본교 홍보 시기에 대한 견해

본교 홍보 시기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의 45.2%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가 적절하다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고3-2학기' 20.4%, '고1과 고2가' 14.2%, 수능직후가 12.2%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24〉 본교 홍보 시기에 대한 견해

	사회과학 대학	인문과학 대학	자연과학 대학	약학 대학	예술 대학	정보과학 대학	디자인 대학	공연예술 대학	전체
고1,고2	20 11.2%	54 16.2%	37 18.1%	4 10.8%	14 8.7%	24 15.9%	18 14.0%	8 12.5%	179 14.2%
고3 1학기	71 39.7%	156 46.7%	91 44.6%	12 32.4%	70 43.5%	74 49.0%	63 48.8%	32 50.0%	569 45.2%
고3 2학기	39 21.8%	53 15.9%	42 20.6%	7 18.9%	50 31.1%	19 12.6%	31 24.0%	16 25.0%	257 20.4%
수능직후	34 19.0%	45 13.5%	21 10.3%	10 27.0%	11 6.8%	23 15.2%	8 6.2%	2 3.1%	154 12.2%
원서작성시	11 6.1%	16 4.8%	12 5.9%	1 2.7%	12 7.5%	8 5.3%	7 5.4%	2 3.1%	69 5.5%
기타	4 2.2%	10 3.0%	1 .5%	3 8.1%	4 2.5%	3 2.0%	2 1.6%	4 6.3%	31 2.5%
전체	179 100.0%	334 100.0%	204 100.0%	37 100.0%	161 100.0%	151 100.0%	129 100.0%	64 100.0%	125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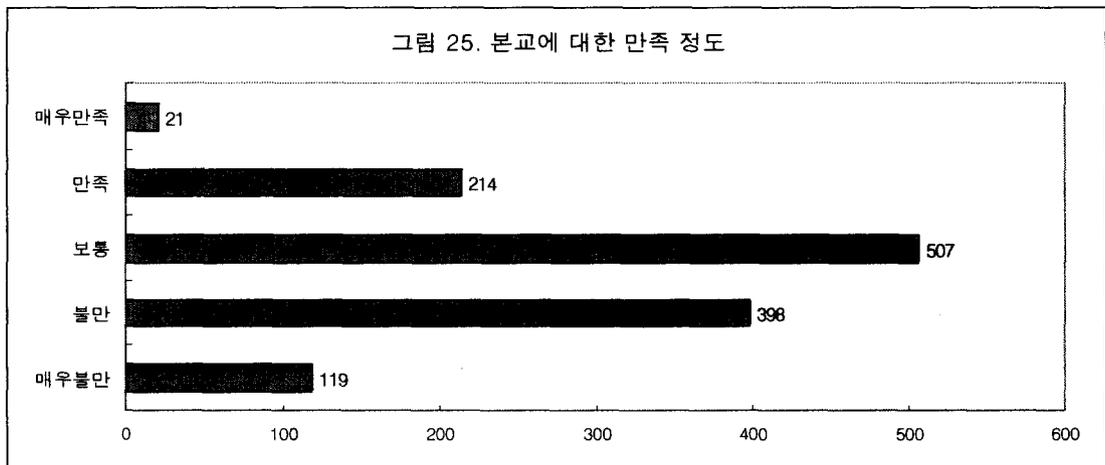


(6) 본교에 대한 만족 정도

본교에 대한 만족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보통 이상에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59%로 었다. 이 중 '보통'은 40.3%, '만족'은 17%, '매우 만족'은 1.7%를 차지하였다. 한편, 전반적으로 불만족한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41.1%였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공연예술대학으로 그 비율은 26.6%였고,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9.4%로, 소속 학생들 중 36%가 본교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5〉 단과대학별 본교 만족 정도

	사회과학 대학	인문과학 대학	자연과학 대학	약학 대학	예술 대학	정보과학 대학	디자인 대학	공연예술 대학	전체
매우불만	13 7.3%	30 9.0%	15 7.4%	4 10.8%	10 6.2%	24 15.9%	12 9.3%	11 17.2%	119 9.5%
불만	68 38.0%	105 31.4%	64 31.4%	9 24.3%	52 32.3%	48 31.8%	39 30.2%	13 20.3%	398 31.6%
보통	78 43.6%	140 41.9%	81 39.7%	15 40.5%	67 41.6%	60 39.7%	49 38.0%	17 26.6%	507 40.3%
만족	19 10.6%	57 17.1%	39 19.1%	9 24.3%	29 18.0%	18 11.9%	26 20.2%	17 26.6%	214 17.0%
매우만족	1 .6%	2 .6%	5 2.5%		3 1.9%	1 .7%	3 2.3%	6 9.4%	21 1.7%
전체	179 100.0%	334 100.0%	204 100.0%	37 100.0%	161 100.0%	151 100.0%	129 100.0%	64 100.0%	125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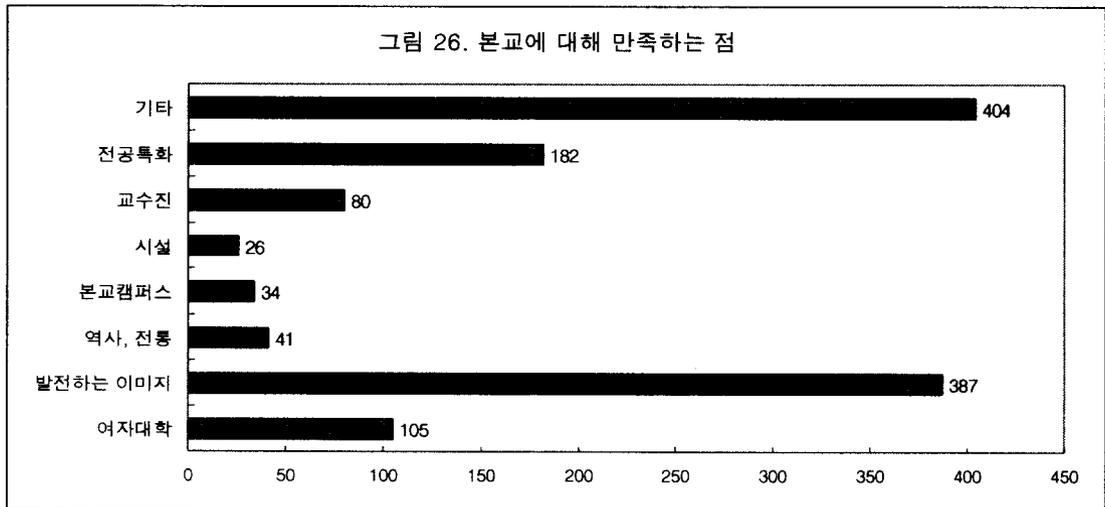


(7) 본교에 대해 만족하는 점

본교에 대해 만족하는 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의 30.7%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발전하는 이미지’라고 응답하여 ‘기타’ 항목 이외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전체의 14.5%가 ‘전공특화’를 들었다. 반면에 ‘시설’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2.1%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26〉 단과대학별 본교 만족 이유

	사회과학 대학	인문과학 대학	자연과학 대학	약학 대학	예술 대학	정보과학 대학	디자인 대학	공연예술 대학	전체
여자대학	19 10.6%	35 10.5%	20 9.8%	3 8.1%	12 7.5%	12 7.9%	2 1.6%	2 3.1%	105 8.3%
발전하는 이미지	68 38.0%	106 31.7%	71 34.8%	4 10.8%	56 34.8%	49 32.5%	20 15.5%	13 20.3%	387 30.7%
역사,전통	4 2.2%	12 3.6%	10 4.9%		4 2.5%	8 5.3%	3 2.3%		41 3.3%
본교캠퍼스	6 3.4%	8 2.4%	6 2.9%	2 5.4%	4 2.5%	4 2.6%	2 1.6%	2 3.1%	34 2.7%
시설	6 3.4%	7 2.1%	5 2.5%	1 2.7%	2 1.2%	4 2.6%		1 1.6%	26 2.1%
교수진	10 5.6%	31 9.3%	8 3.9%	1 2.7%	15 9.3%	2 1.3%	7 5.4%	6 9.4%	80 6.4%
전공특화	5 2.8%	25 7.5%	12 5.9%	3 8.1%	21 13.0%	13 8.6%	77 59.7%	26 40.6%	182 14.5%
기타	61 34.1%	110 32.9%	72 35.3%	23 62.2%	47 29.2%	59 39.1%	18 14.0%	14 21.9%	404 32.1%
전체	179 100.0%	334 100.0%	204 100.0%	37 100.0%	161 100.0%	151 100.0%	129 100.0%	64 100.0%	125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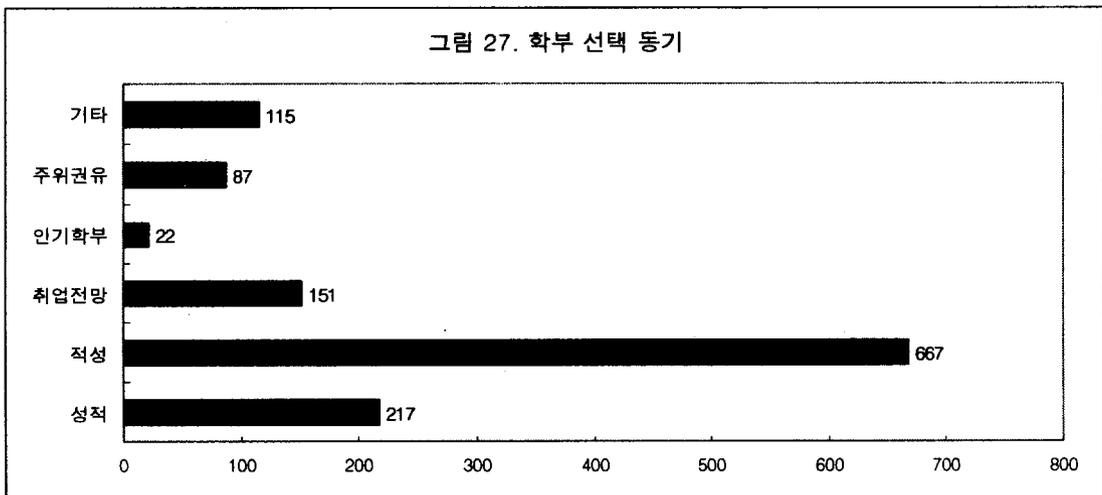
(8) 학부 선택 동기

학부 선택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의 53%가 '적성'으로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성적'이 17.2%, '취업전망'이 12.0%이 순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공연예술대학, 디자인대학, 예술대학 학생들이 '적성'을 학부 선택의 이유로 응답한 비율이 각각 75.0%, 73.6%, 70.2%로 다른 단과대학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약학대학은 '적성'을 학부 선택의 이유로 응답한 비율이 5.4%로 타 대학보다 낮은 비율을 보이는 반면, '취업전망'을 보고 학부를 선택했다는 응답이 56.8%로 타 대학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서 대조적인 양상을 나타냈다.

〈표 27〉 단과대학별 학부 선택 동기

	사회과학 대학	인문과학 대학	자연과학 대학	약학 대학	예술 대학	정보과학 대학	디자인 대학	공연예술 대학	전체
성적	37 20.7%	59 17.7%	69 33.8%	4 10.8%	13 8.1%	32 21.2%	2 1.6%	1 1.6%	217 17.2%
적성	78 43.6%	212 63.5%	83 40.7%	2 5.4%	113 70.2%	36 23.8%	95 73.6%	48 75.0%	667 53.0%
취업전망	28 15.6%	13 3.9%	18 8.8%	21 56.8%	4 2.5%	55 36.4%	9 7.0%	3 4.7%	151 12.0%
인기학부	3 1.7%	1 .3%		3 8.1%		8 5.3%	7 5.4%		22 1.7%
주위권유	18 10.1%	21 6.3%	17 8.3%	7 18.9%	7 4.3%	10 6.6%	4 3.1%	3 4.7%	87 6.9%
기타	15 8.4%	28 8.4%	17 8.3%		24 14.9%	10 6.6%	12 9.3%	9 14.1%	115 9.1%
전체	179 100.0%	334 100.0%	204 100.0%	37 100.0%	161 100.0%	151 100.0%	129 100.0%	64 100.0%	1259 100.0%

그림 27. 학부 선택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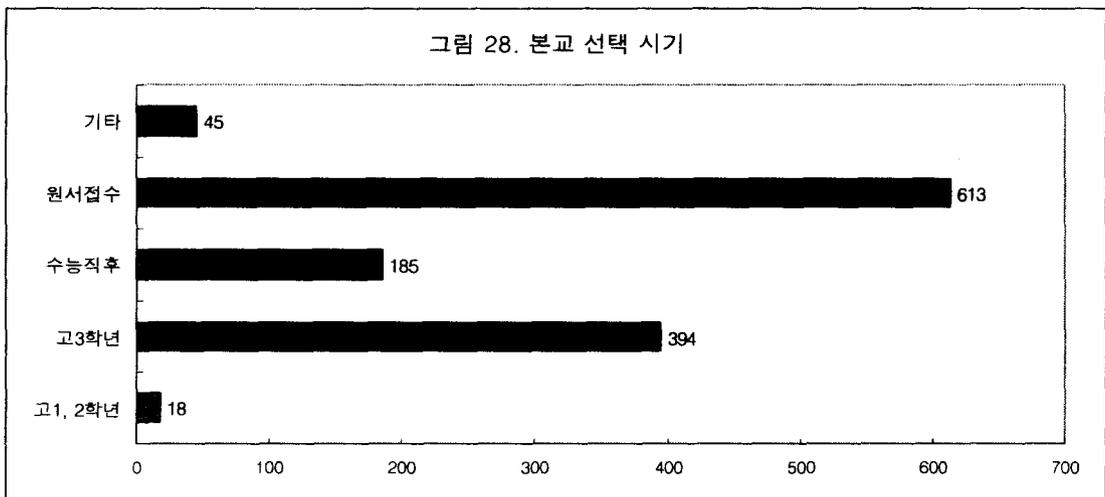


(9) 본교 선택 시기

본교 선택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원서접수 시'가 48.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그 다음으로는 '고등학교 3학년'이 31.4%, '수능직후'가 14.7%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원서접수 시'라는 응답에는 사회과학대학이 6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고 3학년'이라는 응답에는 공연예술대학이 39.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28〉 단과대학별 본교 선택 시기

	사회과학 대학	인문과학 대학	자연과학 대학	약학 대학	예술 대학	정보과학 대학	디자인 대학	공연예술 대학	전체
고1,2학년		2 .6%	5 2.5%		1 .6%	1 .7%	4 3.1%	5 7.8%	18 1.4%
고3학년	41 22.9%	102 30.7%	76 37.3%	9 25.0%	56 34.8%	36 24.0%	49 38.0%	25 39.1%	394 31.4%
수능직후	19 10.6%	53 16.0%	27 13.2%	5 13.9%	22 13.7%	22 14.7%	32 24.8%	5 7.8%	185 14.7%
원서접수	116 64.8%	166 50.0%	89 43.6%	20 55.6%	74 46.0%	89 59.3%	38 29.5%	21 32.8%	613 48.8%
기타	3 1.7%	9 2.7%	7 3.4%	2 5.6%	8 5.0%	2 1.3%	6 4.7%	8 12.5%	45 3.6%
전체	179 100.0%	332 100.0%	204 100.0%	36 100.0%	161 100.0%	150 100.0%	129 100.0%	64 100.0%	125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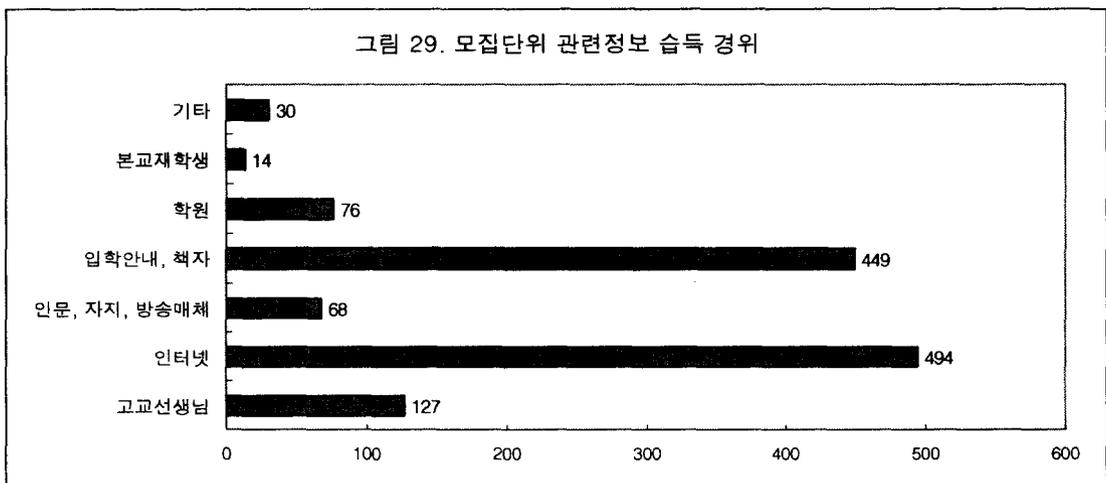


(10) 모집단위 관련정보 습득 경위

모집단위 관련정보에 대한 습득 경위를 묻는 질문에는 '인터넷'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39.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전체의 35.7%가 '입학 안내 책자'라고 반응하였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디자인대학의 경우 '학원'에서 정보를 습득하였다는 응답이 소속 학생의 28.1%로 타 대학에 비하여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공연예술대학은 인터넷을 이용해 정보를 습득한 경우가 가장 많은 50%였고, 자연과학대학은 입학안내 책자를 이용해 정보를 습득한 경우가 47.1%로 가장 높았다.

(표 29) 단과대학별 모집단위 관련정보 습득 경위

	사회과학 대학	인문과학 대학	자연과학 대학	약학 대학	예술 대학	정보과학 대학	디자인 대학	공연예술 대학	전체
고교선생님	20 11.2%	35 10.5%	17 8.3%	4 10.8%	8 5.0%	24 15.9%	7 5.5%	12 18.8%	127 10.1%
인터넷	72 40.2%	142 42.5%	72 35.3%	14 37.8%	60 37.3%	68 45.0%	34 26.6%	32 50.0%	494 39.3%
인문, 잡지, 방송매체	8 4.5%	14 4.2%	7 3.4%	3 8.1%	23 14.3%	1 .7%	10 7.8%	2 3.1%	68 5.4%
입학안내 책자	70 39.1%	130 38.9%	96 47.1%	13 35.1%	46 28.6%	52 34.4%	36 28.1%	6 9.4%	449 35.7%
학원	3 1.7%	2 .6%	9 4.4%	1 2.7%	18 11.2%	2 1.3%	36 28.1%	5 7.8%	76 6.0%
본교재학생	2 1.1%	4 1.2%	1 .5%	1 2.7%	2 1.2%	2 1.3%	1 .8%	1 1.6%	14 1.1%
기타	4 2.2%	7 2.1%	2 1.0%	1 2.7%	4 2.5%	2 1.3%	4 3.1%	6 9.4%	30 2.4%
전체	179 100.0%	334 100.0%	204 100.0%	37 100.0%	161 100.0%	151 100.0%	128 100.0%	64 100.0%	125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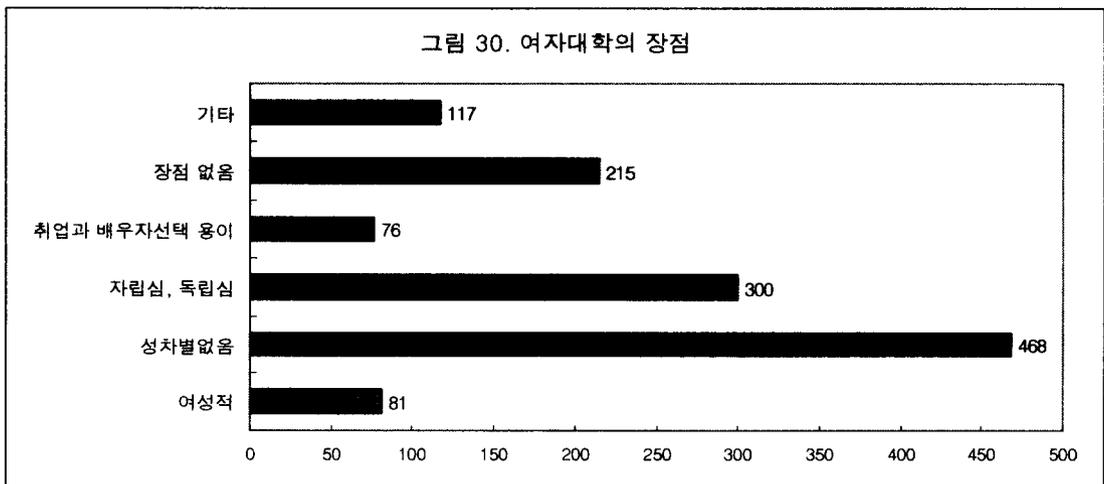


(11) 여자대학의 장점에 대한 견해

여자대학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 신입생의 가장 많은 비율인 37.2%가 ‘성차별이 없다’는 점을 들었고, 그 다음으로 23.9%가 ‘자립심과 독립심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한편, ‘장점이 없다’는 응답도 17.1%를 차지하였다. 단과대학별로는, 자연과학대학과 약학대학이 ‘성차별이 없다’는 점과 ‘자립심과 독립심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여대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은 것을 알 수 있었다(각각 46.1%와 40.5%). 반면, 취업이나 배우자 선택이 용이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전체의 6.0%로 가장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0〉 단과대학별 여대의 장점에 대한 견해

	사회과학 대학	인문과학 대학	자연과학 대학	약학 대학	예술 대학	정보과학 대학	디자인 대학	공연예술 대학	전체
여성적	20 11.2%	20 6.0%	11 5.4%	1 2.7%	14 8.8%	6 4.0%	7 5.4%	2 3.1%	81 6.4%
성차별없음	56 31.3%	131 39.3%	94 46.1%	8 21.6%	54 33.8%	49 32.5%	53 41.1%	23 35.9%	468 37.2%
자립심, 독립심	39 21.8%	71 21.3%	48 23.5%	15 40.5%	44 27.5%	38 25.2%	32 24.8%	13 20.3%	300 23.9%
취업과 배우자선택용이	12 6.7%	21 6.3%	16 7.8%	2 5.4%	7 4.4%	10 6.6%	6 4.7%	2 3.1%	76 6.0%
장점 없음	34 19.0%	52 15.6%	24 11.8%	5 13.5%	25 15.6%	34 22.5%	26 20.2%	15 23.4%	215 17.1%
기타	18 10.1%	38 11.4%	11 5.4%	6 16.2%	16 10.0%	14 9.3%	5 3.9%	9 14.1%	117 9.3%
전체	179 100.0%	333 100.0%	204 100.0%	37 100.0%	160 100.0%	151 100.0%	129 100.0%	64 100.0%	125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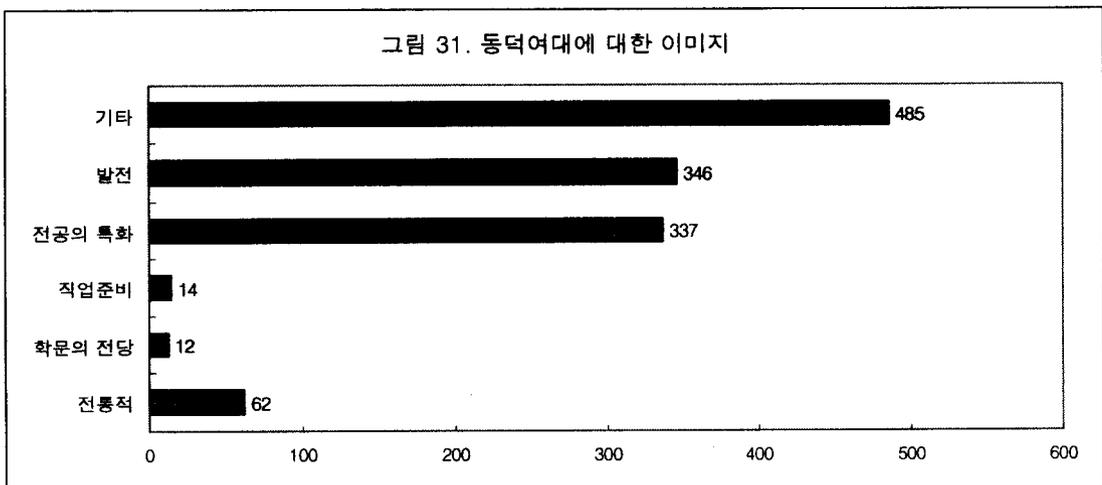


(12) 동덕여대에 대한 이미지

동덕여대에 대한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는 본교 만족정도를 묻는 질문에서와 같이 '발전하는 이미지'가 전체의 27.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전공의 특화'가 26.8%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반면, '직업준비의 현장'이나 '학문의 전당'이라는 항목에는 각각 1.1%, 1.0%의 학생들만이 응답하였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자연과학대학 신입생들이 본교가 발전하는 대학이라는 이미지를 가장 많이 갖고 있음을 볼 수 있었고(소속 신입생의 35.3%), 디자인대학 학생들이 전공의 특화가 잘 이루어지는 대학이라는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69.8%).

〈표 31〉 단과대학별 동덕여대에 대한 이미지

	사회과학 대학	인문과학 대학	자연과학 대학	약학 대학	예술 대학	정보과학 대학	디자인 대학	공연예술 대학	전체
전통적	6 3.4%	14 4.2%	13 6.4%	2 5.4%	9 5.6%	11 7.3%	2 1.6%	5 7.8%	62 4.9%
학문의 전당		3 .9%	4 2.0%		4 2.5%	1 .7%			12 1.0%
직업준비	2 1.1%	4 1.2%	2 1.0%	1 2.7%	1 .6%	1 .7%	3 2.3%		14 1.1%
전공의 특화	33 18.5%	69 20.7%	38 18.6%	8 21.6%	43 26.9%	28 18.5%	90 69.8%	28 43.8%	337 26.8%
발전	59 33.1%	101 30.3%	72 35.3%	8 21.6%	44 27.5%	38 25.2%	12 9.3%	12 18.8%	346 27.5%
기타	78 43.8%	142 42.6%	75 36.8%	18 48.6%	59 36.9%	72 47.7%	22 17.1%	19 29.7%	485 38.6%
전체	178 100.0%	333 100.0%	204 100.0%	37 100.0%	160 100.0%	151 100.0%	129 100.0%	64 100.0%	125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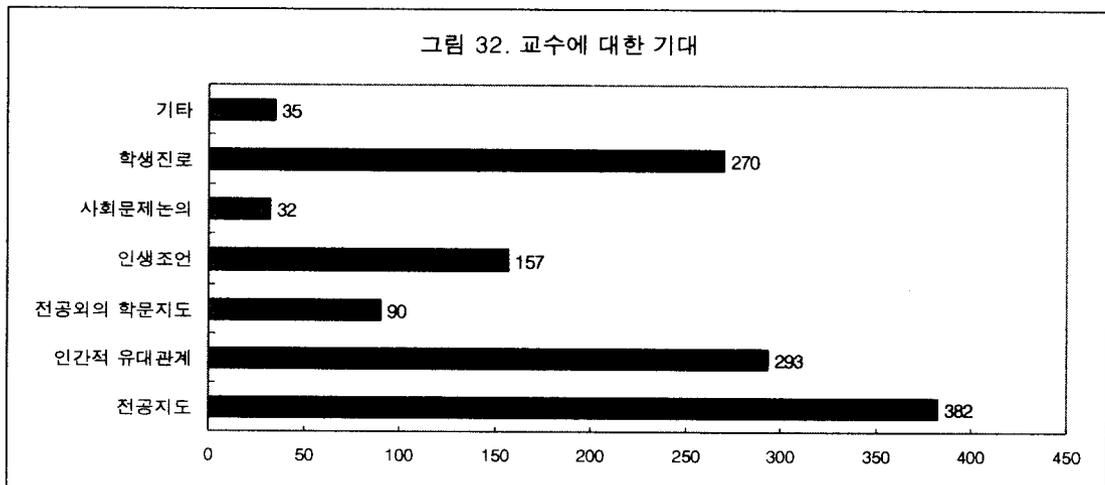
4. 대학생활

(1) 교수에 대한 기대

교수에 대한 기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비율인 전체의 30.3%가 '전공지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인간적 유대관계에 대한 기대'가 23.3%, '학생의 진로 및 생활에 대한 관심'이 21.4%, '인생에 대한 조언'이 12.5%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32〉 단과대학별 교수에 대한 기대

	사회과학 대학	인문과학 대학	자연과학 대학	약학 대학	예술 대학	정보과학 대학	디자인 대학	공연예술 대학	전체
전공지도	51 28.5%	84 25.1%	38 18.6%	13 35.1%	82 38.5%	56 37.1%	52 40.3%	26 40.6%	382 30.3%
인간적 유대관계	38 21.2%	82 24.6%	57 27.9%	5 13.5%	37 23.0%	35 23.2%	26 20.2%	13 20.3%	293 23.3%
전공 외의 학문지도	12 6.7%	34 10.2%	10 4.9%	1 2.7%	13 8.1%	11 7.3%	6 4.7%	3 4.7%	90 7.1%
인생조언	17 9.5%	46 13.8%	38 18.6%	8 21.6%	14 8.7%	19 12.6%	11 8.5%	4 6.3%	157 12.5%
사회문제논의	9 5.0%	10 3.0%	2 1.0%	2 5.4%	1 .6%	2 1.9%	5 3.9%	1 1.6%	32 2.5%
학생진로	50 27.9%	68 20.4%	49 24.0%	6 16.2%	32 19.9%	24 15.9%	28 21.7%	13 20.3%	270 21.4%
기타	2 1.1%	10 3.0%	10 4.9%	2 5.4%	2 1.2%	1 .8%	1 .8%	4 6.3%	35 2.8%
전체	179 100%	334 100%	204 100%	37 100%	161 100%	151 100%	129 100%	64 100%	125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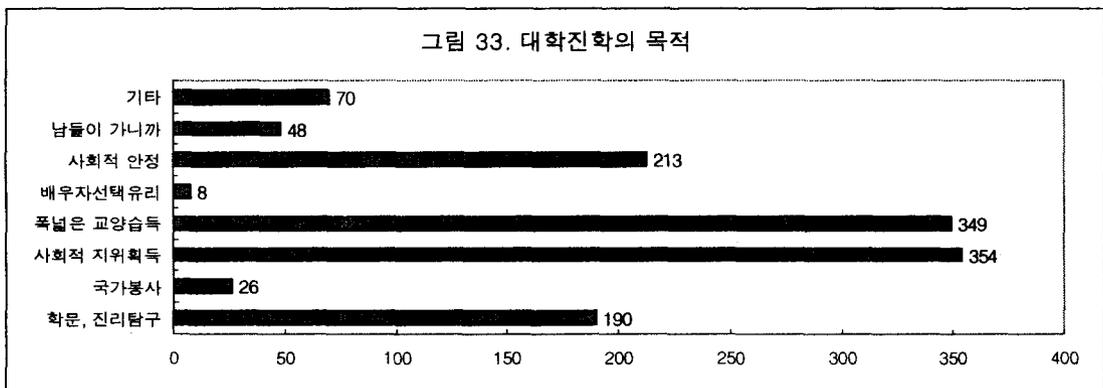


(2) 대학진학의 목적

대학진학의 목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비율인 전체의 28.1%가 '사회적 지위획득'을 들었고, 그 다음으로 27.7%가 '폭넓은 교양습득'을, 16.9%가 '사회적 안정'을, 15.1%가 '학문과 진리탐구'를 선택하였다. 단과대학별로는 약학대학 학생들의 56.8%가 대학진학의 목적으로 '사회적 지위획득'을 지목하여 타 단과대학보다 월등히 높았던 반면, 공연예술대학과 예술대학이 동일한 응답을 한 비율은 각각 14.1%와 19.4%에 불과하여 대조를 이루었다. 그런가하면 약학대학 학생들이 대학 진학의 목적을 '폭넓은 교양습득'으로 응답한 비율은 10.8%로, 예술대학과 공연예술대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표 33〉 단과대학별 대학진학의 목적

	사회과학 대학	인문과학 대학	자연과학 대학	약학 대학	예술 대학	정보과학 대학	디자인 대학	공연예술 대학	전체
학문, 진리탐구	11 6.1%	57 17.1%	26 12.7%	4 10.8%	36 22.5%	26 17.2%	19 14.7%	11 17.2%	190 15.1%
국가봉사	4 2.2%	6 1.8%	3 1.5%	3 8.1%	3 1.9%	4 2.6%	3 2.3%		26 2.1%
사회적 지위획득	66 36.9%	81 24.3%	62 30.4%	21 56.8%	31 19.4%	47 31.1%	37 28.7%	9 14.1%	354 28.1%
폭넓은 교양습득	47 26.3%	106 31.7%	55 27.0%	4 10.8%	51 31.9%	31 20.5%	30 23.3%	25 39.1%	349 27.7%
배우자선택유리	2 1.1%		4 2.0%		2 1.3%				8 .6%
사회적 안정	37 20.7%	53 15.9%	37 18.1%	1 2.7%	23 14.4%	26 17.2%	26 20.2%	10 15.6%	213 16.9%
남들이 가니까	5 2.8%	12 3.6%	11 5.4%	1 2.7%	4 2.5%	10 6.6%	2 1.6%	3 4.7%	48 3.8%
기타	7 3.9%	19 5.7%	6 2.9%	3 8.1%	10 6.3%	7 4.6%	12 9.3%	6 9.4%	70 5.6%
전체	179 100.0%	334 100.0%	204 100.0%	37 100.0%	160 100.0%	151 100.0%	129 100.0%	64 100.0%	125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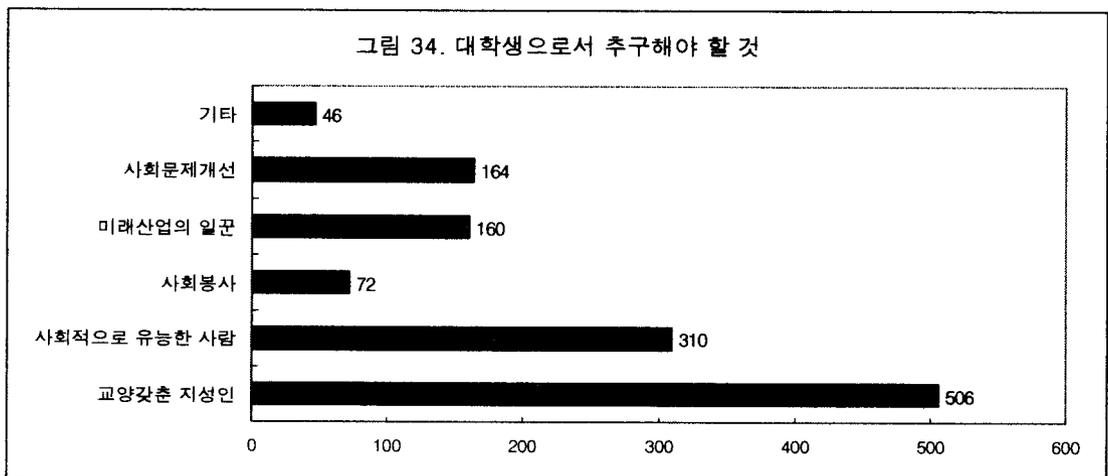


(3) 대학생으로서 추구해야 할 것

대학생으로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교양을 갖춘 지성인’에 전체의 40.2%가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적으로 유능한 사람’에 24.6%, ‘사회문제 개선’에 13.0%, ‘미래산업의 일꾼’에 12.7%가 응답하였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공연예술 대학 신입생의 51.6%가 ‘교양을 갖춘 지성인’으로 응답한 결과가 두드러졌고, ‘미래 산업의 일꾼’이라는 응답에는 디자인대학 신입생의 25.6%가, 그리고 ‘사회문제 개선’이라는 응답에는 사회과학대학 신입생의 22.3%가 반응한 결과가 특기할만하였다.

〈표 34〉 대학생으로서 추구해야 할 것에 관한 견해

	사회과학 대학	인문과학 대학	자연과학 대학	약학 대학	예술 대학	정보과학 대학	디자인 대학	공연예술 대학	전체
교양갖춘 지성인	59 33.0%	145 43.5%	84 41.2%	18 48.6%	76 48.4%	58 37.1%	33 25.6%	33 51.6%	506 40.2%
사회적으로 유능한 사람	54 30.2%	78 23.4%	53 26.0%	7 18.9%	38 23.6%	46 23.8%	34 26.4%	10 15.6%	310 24.6%
사회 봉사	7 3.9%	22 6.6%	15 7.4%	5 13.5%	9 5.6%	9 6.0%	4 3.1%	1 1.6%	72 5.7%
미래산업의 일꾼	17 9.5%	29 8.7%	30 14.7%	4 10.8%	11 6.8%	28 18.5%	33 25.6%	8 12.5%	160 12.7%
사회문제개선	40 22.3%	48 14.4%	18 8.8%	3 8.1%	14 8.7%	18 11.9%	19 14.7%	4 6.3%	164 13.0%
기타	2 1.1%	11 3.3%	4 2.0%		11 6.8%	4 2.6%	6 4.7%	8 12.5%	46 3.7%
전체	179 100.0%	333 100.0%	204 100.0%	37 100.0%	161 100.0%	151 100.0%	129 100.0%	64 100.0%	125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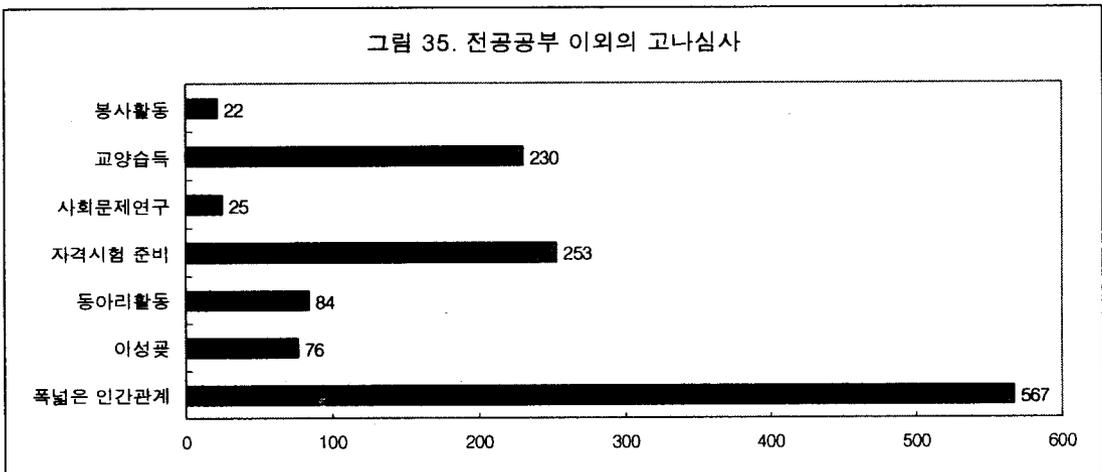


(4) 전공 이외의 관심사

전공공부 이외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가장 높은 비율인 45.1%가 '폭넓은 인간관계'로 응답하여 많은 학생들이 인간관계에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자격 시험 준비'를 20.1%가, 그리고 '교양습득'을 18.3%가 선택하였다. 단과대학별로는 디자인대학 신입생의 60.5%가 '폭넓은 인간관계'를 전공 공부 이외에 가장 하고 싶은 일로 지목한 것이 타 대학과 대조를 이루었다. 한편, '자격시험 준비'에서는 사회과학대학이(25.3%) 그리고 '교양습득'에서는 약학대학(27.0%)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35〉 단과대학별 전공공부 이외의 관심사

	사회과학 대학	인문과학 대학	자연과학 대학	약학 대학	예술 대학	정보과학 대학	디자인 대학	공연예술 대학	전체
폭넓은 인간관계	81 45.5%	153 45.9%	79 38.7%	16 43.2%	69 42.9%	95 41.9%	78 60.5%	30 46.9%	567 45.1%
이성교제	6 3.4%	16 4.8%	12 5.9%	2 5.4%	18 11.2%	26 11.5%	4 3.1%	7 10.9%	76 6.0%
동아리 활동	13 7.3%	14 4.2%	20 9.8%	4 10.8%	11 6.8%	11 4.8%	11 8.5%	4 6.3%	84 6.7%
자격시험 준비	45 25.3%	71 21.3%	51 25.0%	4 10.8%	15 9.3%	43 18.9%	21 16.3%	5 7.8%	253 20.1%
사회문제연 구	4 2.2%	11 3.3%	2 1.0%	1 2.7%	3 1.9%	4 1.8%	1 .8%	1 1.6%	25 2.0%
교양습득	27 15.2%	63 18.9%	36 17.6%	10 27.0%	43 26.7%	44 19.4%	10 7.8%	15 23.4%	230 18.3%
봉사활동	2 1.1%	5 1.5%	4 2.0%		2 1.2%	4 1.8%	4 3.1%	2 3.1%	22 1.8%
전체	178 100.0%	333 100.0%	204 100.0%	37 100.0%	161 100.0%	227 100.0%	129 100.0%	64 100.0%	125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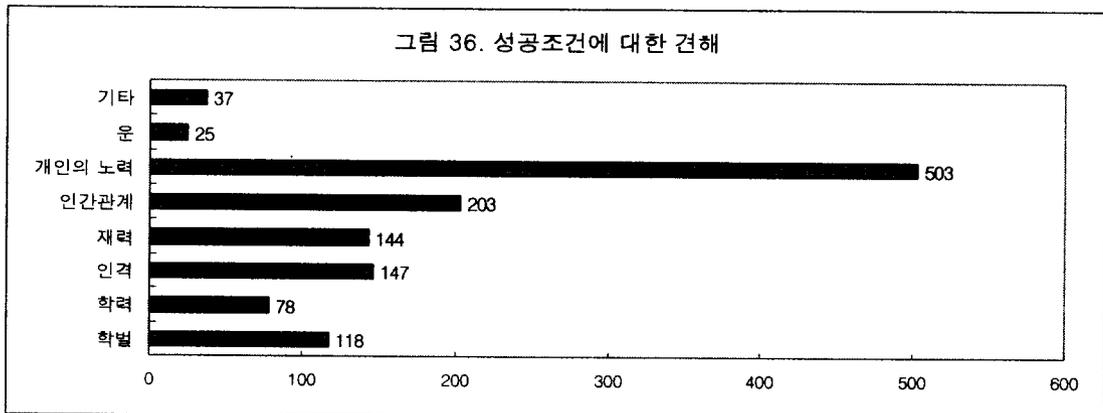
(5) 사회에서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요인

사회에서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비율인 40.1%가 '개인의 노력'이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인간관계'에 16.2%가, '인격'에 11.7%가, 그리고 '재력'에 11.5%가 응답하였다. 단과대학별로는 디자인대학 신입생들이 '개인의 노력'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8.4%로 가장 높았고,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디자인대학이 20.3%의 비율을 보여 가장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약학대학 신입생들은 43.2%가 '개인의 노력'을 들었으나,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8.1%만이 응답하였다.

〈표 36〉 단과대학별 사회에서의 성공조건에 관한 견해

	사회과학 대학	인문과학 대학	자연과학 대학	약학 대학	예술 대학	정보과학 대학	디자인 대학	공연예술 대학	전체
학벌	19 10.7%	35 10.5%	16 7.8%	1 2.7%	12 7.5%	12 14.6%	10 7.8%	3 4.8%	118 9.4%
학력	13 7.3%	23 6.9%	17 8.3%	2 5.4%	12 7.5%	5 3.3%	4 3.1%	2 3.2%	78 6.2%
인격	15 8.4%	49 14.7%	25 12.3%	4 10.8%	23 14.3%	13 8.6%	11 8.6%	7 11.1%	147 11.7%
재력	26 14.6%	34 10.2%	18 8.8%	8 21.6%	18 11.2%	25 16.6%	11 8.6%	4 6.3%	144 11.5%
인간관계	28 15.7%	47 14.1%	37 18.1%	3 8.1%	29 18.0%	23 15.2%	26 20.3%	10 15.9%	203 16.2%
개인의 노력	71 39.9%	131 39.3%	82 40.2%	16 43.2%	57 35.3%	56 37.1%	62 48.4%	28 44.4%	503 40.1%
운	2 1.1%	4 1.2%	3 1.5%		4 2.5%	5 3.3%	1 .8%	6 9.5%	25 2.0%
기타	4 2.2%	10 3.0%	6 2.9%	3 8.1%	6 3.7%	2 1.3%	3 2.3%	3 4.8%	37 2.9%
전체	178 100.0%	333 100.0%	204 100.0%	37 100.0%	161 100.0%	151 100.0%	128 100.0%	63 100.0%	1255 100.0%

그림 36. 성공조건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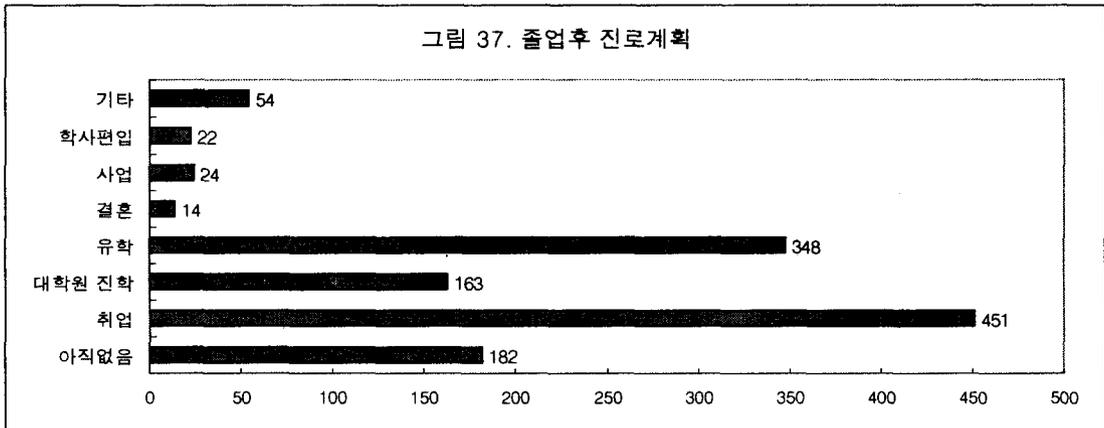


(6) 졸업후 진로계획

졸업 후 진로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취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35.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유학'이 27.7%, '미정'이 14.5%, '대학원 진학'이 13.0% 등으로 조사되었다. 단과대학별로는 약학대학의 경우 취업하겠다는 응답이 56.8%로 가장 많았고, 유학을 가겠다는 응답은 디자인대학의 경우가 60.5%로 가장 높았다. 한편, 대학원을 진학하겠다는 대답은 공연예술대학이 22.2%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7〉 단과대학별 졸업 후 진로계획

	사회과학 대학	인문과학 대학	자연과학 대학	약학 대학	예술 대학	정보과학 대학	디자인 대학	공연예술 대학	전체
아직없음	24 13.4%	49 14.7%	28 13.7%	9 24.3%	27 18.0%	24 15.9%	10 7.8%	9 14.3%	182 14.5%
취업	72 40.2%	130 38.9%	100 49.0%	21 56.8%	24 14.9%	73 48.3%	25 19.4%	6 9.5%	451 35.9%
대학원 진학	22 12.3%	40 12.0%	31 15.2%	3 8.1%	24 14.9%	21 13.9%	8 6.2%	14 22.2%	163 13.0%
유학	43 24.0%	86 25.7%	26 12.7%	4 10.8%	71 44.1%	23 15.2%	78 60.5%	17 27.0%	348 27.7%
결혼	3 1.7%	5 1.5%	2 1.0%		1 .6%	1 .7%	1 .8%	1 1.6%	14 1.1%
사업	7 3.9%	2 .6%	5 2.5%		2 1.2%	3 2.0%	3 2.3%	2 3.2%	24 1.9%
학사편입	3 1.7%	9 2.7%	4 2.0%		2 1.2%	3 2.0%		1 1.6%	22 1.7%
기타	5 2.8%	13 3.9%	8 3.9%		8 5.0%	3 2.0%	4 3.1%	13 20.6%	54 4.3%
전체	179 100.0%	334 100.0%	204 100.0%	37 100.0%	161 100.0%	151 100.0%	129 100.0%	63 100.0%	125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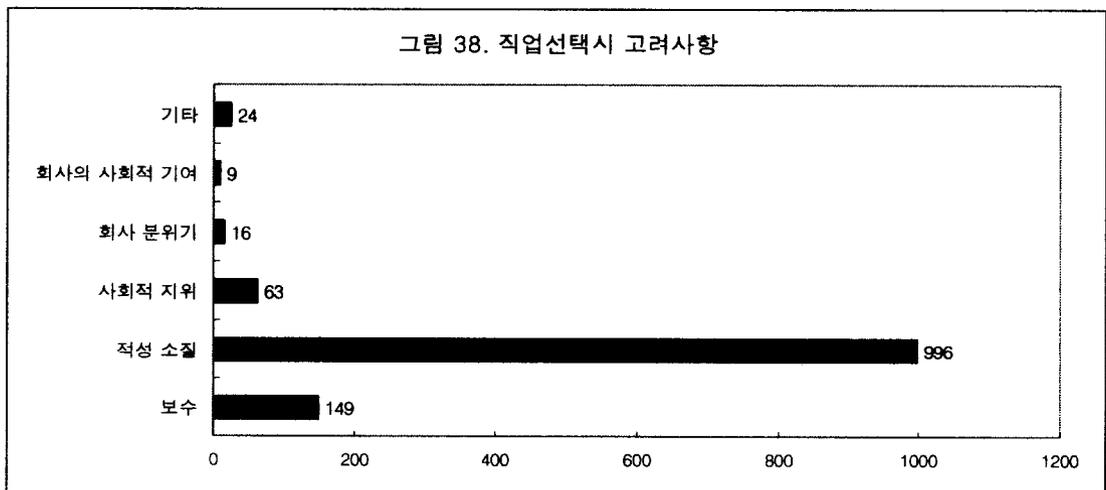


(7) 직업선택 시 고려사항

직업 선택 시 고려할 점을 묻는 질문에는 ‘적성과 소질’이라는 대답이 전체 응답의 79.2%로 가장 높았고, 보수가 11.9%, 사회적 지위가 5.0%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단과대별로는 대부분의 단과대학생들이 거의 같은 비율로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겠다고 대답한 반면, 약학대학의 경우에는 59.5%만이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을 하였다. 한편, 약대 학생들의 경우 직업선택 시 고려할 점으로 ‘보수’를 지목한 비율이 29.7%로 다른 단과대학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38〉 단과대학별 직업선택시 고려사항

	사회과학 대학	인문과학 대학	자연과학 대학	약학 대학	예술 대학	정보과학 대학	디자인 대학	공연예술 대학	전체
보수	23 12.9%	35 10.5%	26 12.7%	11 29.7%	15 9.4%	25 16.6%	10 7.8%	4 6.3%	149 11.9%
적성 소질	135 75.8%	279 83.5%	152 74.5%	22 59.5%	138 86.3%	111 73.5%	108 83.7%	51 79.7%	996 79.2%
사회적 지위	16 9.0%	11 3.3%	19 9.3%	2 5.4%	4 2.5%	8 4.0%	4 3.1%	1 1.6%	63 5.0%
회사 분위기	1 .6%	4 1.2%	1 .5%		2 1.3%	3 2.0%	3 2.3%	2 3.1%	16 1.3%
회사의 사회적 기여		1 .3%	2 1.0%			3 2.0%	3 2.3%		9 .7%
기타	3 1.7%	4 1.2%	4 2.0%	2 5.4%	1 .6%	3 2.0%	1 .8%	6 9.4%	24 1.9%
전체	178 100.0%	334 100.0%	204 100.0%	37 100.0%	160 100.0%	151 100.0%	129 100.0%	64 100.0%	125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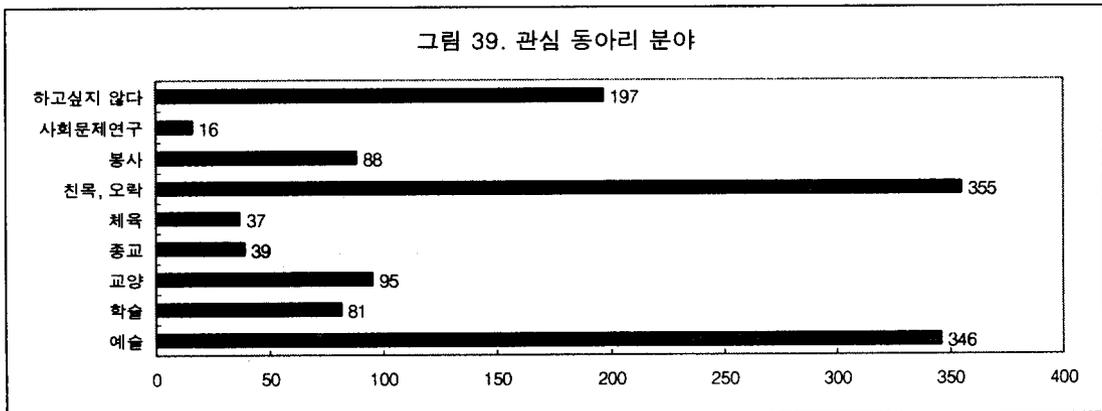


(8) 참여하고 싶은 동아리 활동분야

참여하고 싶은 동아리 활동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친목 및 오락'으로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28.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예술'이 27.6%, 그리고 '하고 싶지 않다'가 15.7%로 조사되었다. 단과대학 별로 살펴보면 관심 있는 동아리 활동으로 '예술'을 꼽은 비율이 높은 단과대학이 디자인대학(50.0%), 공연예술대학(43.8%), 예술대학(36.6%)으로 조사되어 예술에 대한 관심은 전공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표 39〉 단과대학별 관심 동아리 분야

	사회과학 대학	인문과학 대학	자연과학 대학	약학 대학	예술 대학	정보과학 대학	디자인 대학	공연예술 대학	전체
예술	31 17.3%	82 24.8%	48 23.6%	12 32.4%	59 36.6%	22 14.6%	64 50.0%	28 43.8%	346 27.6%
학술	25 14.0%	28 8.5%	5 2.5%	1 2.7%	2 1.2%	18 11.9%	2 1.6%		81 6.5%
교양	18 10.1%	32 9.7%	10 4.9%	4 10.8%	9 5.6%	14 9.3%	7 5.5%	1 1.6%	95 7.6%
종교	2 1.1%	9 2.7%	6 3.0%	1 2.7%	10 6.2%	4 2.8%	2 1.6%	5 7.8%	39 3.1%
체육	6 3.4%	12 3.6%	11 5.4%		2 1.2%	5 3.3%	1 .8%		37 3.0%
친목,오락	58 32.4%	89 26.9%	59 29.1%	10 27.0%	40 24.8%	52 34.4%	34 26.6%	13 20.3%	355 28.3%
봉사	10 5.6%	24 7.3%	29 14.3%	4 10.8%	6 3.7%	9 6.0%	4 3.1%	2 3.1%	88 7.0%
사회문제 연구	6 3.4%	6 1.8%	1 .5%	1 2.7%	1 .6%			1 1.6%	16 1.3%
하고싶지 않다	23 12.8%	49 14.8%	34 16.7%	4 10.8%	32 19.9%	27 17.9%	14 10.9%	14 21.9%	197 15.7%
전체	179 100.0%	331 100.0%	203 100.0%	37 100.0%	161 100.0%	151 100.0%	128 100.0%	64 100.0%	125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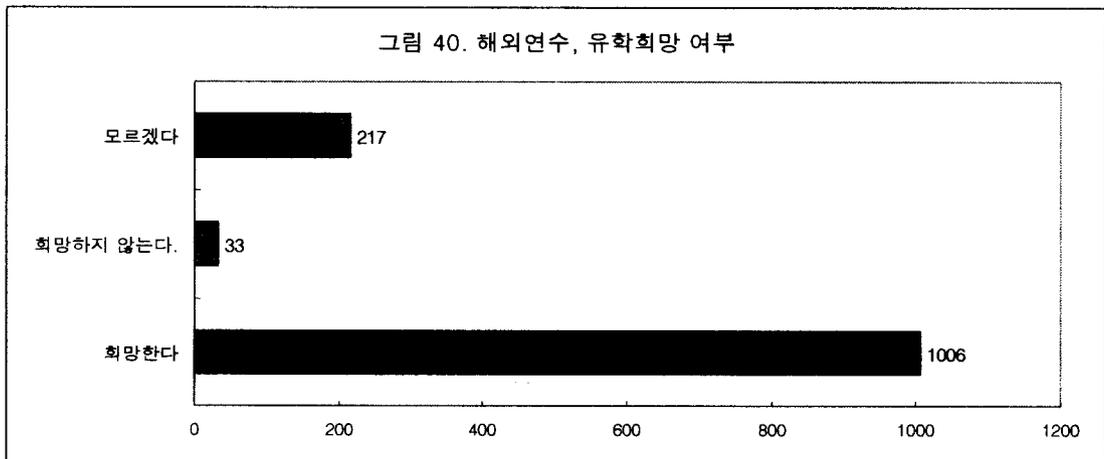


(9) 전공 및 어학을 위한 유학이나 연수의 희망여부

전공 및 어학을 위한 유학이나 연수의 희망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유학이나 연수를 '희망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80.1%로 압도적으로 높았던 반면, '모르겠다'는 응답은 17.3%, '희망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6%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과대학 별로는 디자인대학 신입생의 89.8%가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고려하고 있어, 다른 단과대학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0〉 단과대학별 해외 연수·유학 희망 여부

	사회과학 대학	인문과학 대학	자연과학 대학	약학 대학	예술 대학	정보과학 대학	디자인 대학	공연예술 대학	전체
희망한다	150 83.8%	274 82.0%	147 72.4%	24 64.9%	135 84.4%	115 78.2%	115 89.8%	46 71.9%	1006 80.1%
희망하지 않는다	1 .6%	4 1.2%	6 3.0%	5 13.5%	6 3.8%	9 6.0%		2 3.1%	33 2.6%
모르겠다	28 15.6%	56 16.8%	50 24.6%	8 21.6%	19 11.9%	27 17.9%	13 10.2%	16 25.0%	217 17.3%
전체	179 100.0%	334 100.0%	203 100.0%	37 100.0%	160 100.0%	151 100.0%	128 100.0%	64 100.0%	125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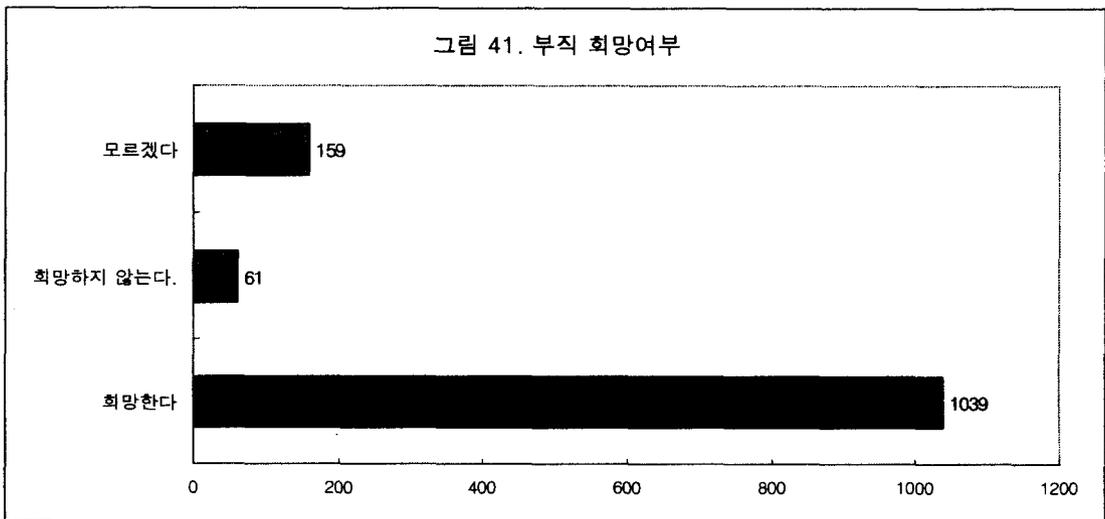


(10) 부직 희망여부

부직을 희망하는 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체의 82.5%가 부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모르겠다'는 대답이 12.6%, '희망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4.8%로 대부분의 신입생들이 부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공연예술대학 학생의 15.6%가 부직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다른 단과대학보다는 부직을 희망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 단과대학별 부직 희망 여부

	사회과학 대학	인문과학 대학	자연과학 대학	약학 대학	예술 대학	정보과학 대학	디자인 대학	공연예술 대학	전체
희망한다	150 83.8%	282 84.4%	162 79.4%	29 78.4%	137 85.1%	125 82.8%	112 86.8%	42 65.6%	1039 82.5%
희망하지 않는다	3 1.7%	13 3.9%	16 7.8%	1 2.7%	8 5.6%	7 4.6%	3 2.3%	10 15.6%	61 4.8%
모르겠다	26 14.5%	39 11.7%	26 12.7%	7 18.9%	16 9.9%	19 12.6%	14 10.9%	12 18.8%	159 12.6%
전체	179 100.0%	334 100.0%	204 100.0%	37 100.0%	161 100.0%	151 100.0%	129 100.0%	64 100.0%	125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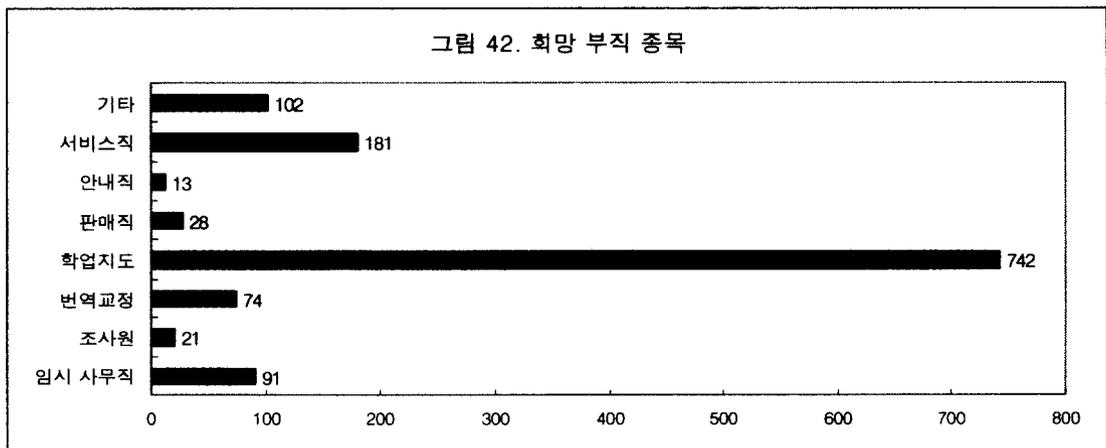


(11) 희망 부직 종목

희망 부직 종목을 묻는 질문에는 ‘학업지도’라는 응답에 전체의 59.3%가 반응하여 가장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서비스직을 14.5%가, 그리고 임시 사무직을 7.3%가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는 약학대학과 예술대학이 각각 89.2%, 78.8%로 학업지도를 희망해 가장 높은 비율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부직으로 번역교정을 희망하는 단과대학은 인문과학대가 14.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직 희망 종목에 있어 전공특성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2〉 단과대학별 희망 부직 종목

	사회과학 대학	인문과학 대학	자연과학 대학	약학 대학	예술 대학	정보과학 대학	디자인 대학	공연예술 대학	전체
임시사무직	25 14.0%	21 6.3%	17 8.4%		4 2.5%	18 12.0%	4 3.1%	2 3.2%	91 7.3%
조사원	6 3.4%	2 .6%	5 2.5%	1 2.7%	1 .6%	4 2.7%	1 .8%	1 1.6%	21 1.7%
번역교정	6 3.4%	49 14.7%	6 3.0%	1 2.7%	2 1.3%	5 3.3%	1 .8%	4 6.3%	74 5.9%
학업지도	81 45.5%	173 52.0%	132 65.0%	33 89.2%	126 78.8%	81 54.0%	88 68.8%	28 44.4%	742 59.3%
판매직	7 3.9%	6 1.8%	4 2.0%	1 2.7%		3 2.0%	5 3.9%	2 3.2%	28 2.2%
안내직	2 1.1%	9 2.7%			1 .6%			1 1.6%	13 1.0%
서비스직	42 23.6%	46 13.8%	27 13.3%	1 2.7%	11 6.9%	25 16.7%	20 15.6%	9 14.3%	181 14.5%
기타	9 5.1%	27 8.1%	12 5.9%		15 9.4%	14 9.3%	9 7.0%	16 25.4%	102 8.1%
전체	178 100.0%	333 100.0%	203 100.0%	37 100.0%	160 100.0%	150 100.0%	128 100.0%	63 100.0%	125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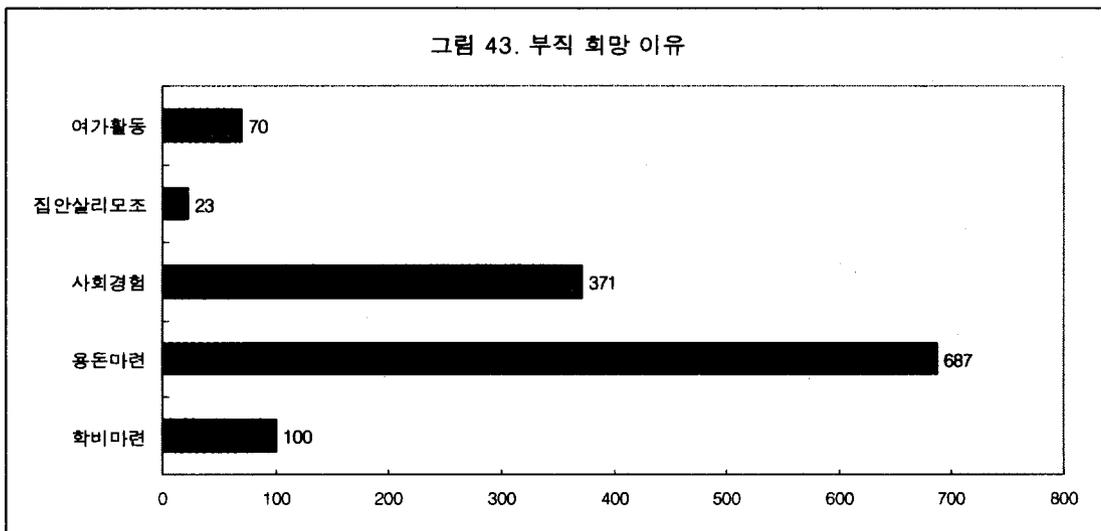


(12) 부직 희망 이유

부직 희망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의 54.9%가 '용돈 마련'이라고 대답해 용돈을 충당하는 것이 부직을 희망하는 주된 이유임을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사회경험을 얻기 위한 목적이 29.7%, 학비마련이 8.0% 순으로 조사되었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약학대학 신입생의 67.6%가 부직 희망 이유를 '용돈 마련'이라고 응답하여, 다른 단과대학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표 43〉 단과 대학별 부직 희망 이유

	사회과학 대학	인문과학 대학	자연과학 대학	약학 대학	예술 대학	정보과학 대학	디자인 대학	공연예술 대학	전체
학비마련	14 7.8%	21 6.4%	18 8.9%	1 2.7%	14 8.8%	15 10.0%	11 8.5%	6 9.5%	100 8.0%
용돈마련	97 54.2%	181 54.8%	112 55.2%	25 67.6%	83 51.9%	94 62.7%	64 49.6%	31 49.2%	687 54.9%
사회경험	58 32.4%	105 31.8%	58 28.6%	9 24.3%	50 31.3%	34 22.7%	43 33.3%	14 22.2%	371 29.7%
집안살림보조		7 2.1%	2 1.0%		8 5.0%	1 .7%	2 1.6%	3 4.8%	23 1.8%
여가활동	10 5.6%	16 4.8%	13 6.4%	2 5.4%	5 3.1%	6 4.0%	9 7.0%	9 14.3%	70 5.6%
전체	179 100.0%	330 100.0%	203 100.0%	37 100.0%	160 100.0%	150 100.0%	129 100.0%	63 100.0%	1251 100.0%



5. 학생생활연구소 이용안내 및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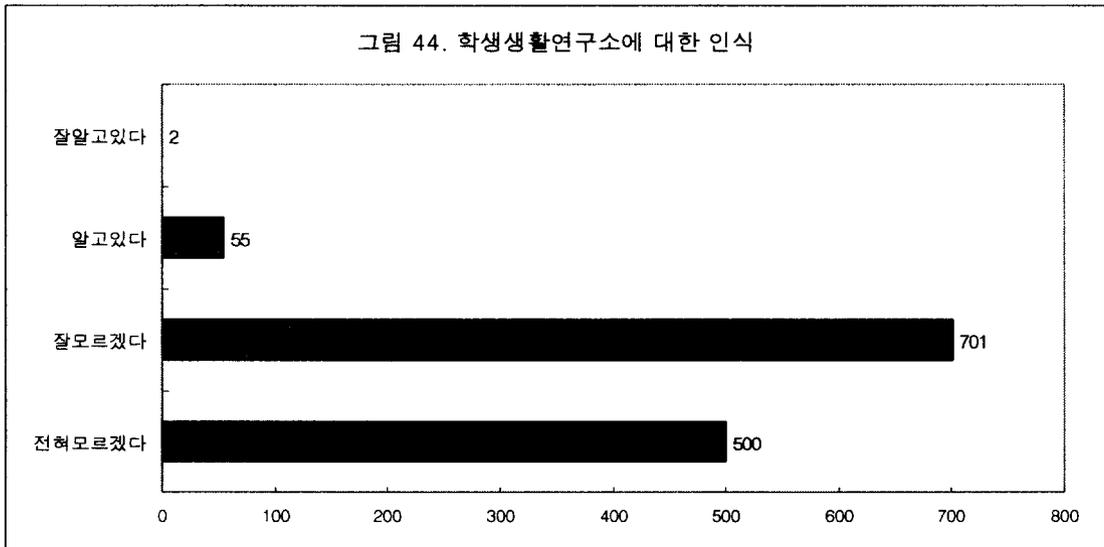
(1) 학생생활연구소에 대한 인식

학생생활연구소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는 대답이 55.7%, '전혀 모르겠다'는 대답이 39.7%, '알고있다'는 대답이 4.4%, '잘 알고있다'는 대답이 0.3%로 연구소에 대한 인식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4〉 단과대별 학생생활연구소에 대한 인식

	사회과학 대학	인문과학 대학	자연과학 대학	약학 대학	예술 대학	정보과학 대학	디자인 대학	공연예술 대학	전체
전혀모르겠다	61 34.1%	145 43.4%	70 34.3%	14 37.8%	73 45.3%	52 34.4%	52 40.6%	33 51.6%	500 39.7%
잘모르겠다	111 62.0%	179 53.6%	125 61.3%	21 56.8%	80 49.7%	87 57.7%	70 54.7%	28 43.8%	701 55.7%
알고있다	7 3.9%	10 3.0%	8 3.9%	2 5.4%	8 5.0%	11 7.3%	6 4.7%	3 4.7%	55 4.4%
잘알고있다			1 .5%			1 .7%			2 .2%
전체	179 100.0%	334 100.0%	204 100.0%	37 100.0%	161 100.0%	151 100.0%	128 100.0%	64 100.0%	1258 100.0%

그림 44. 학생생활연구소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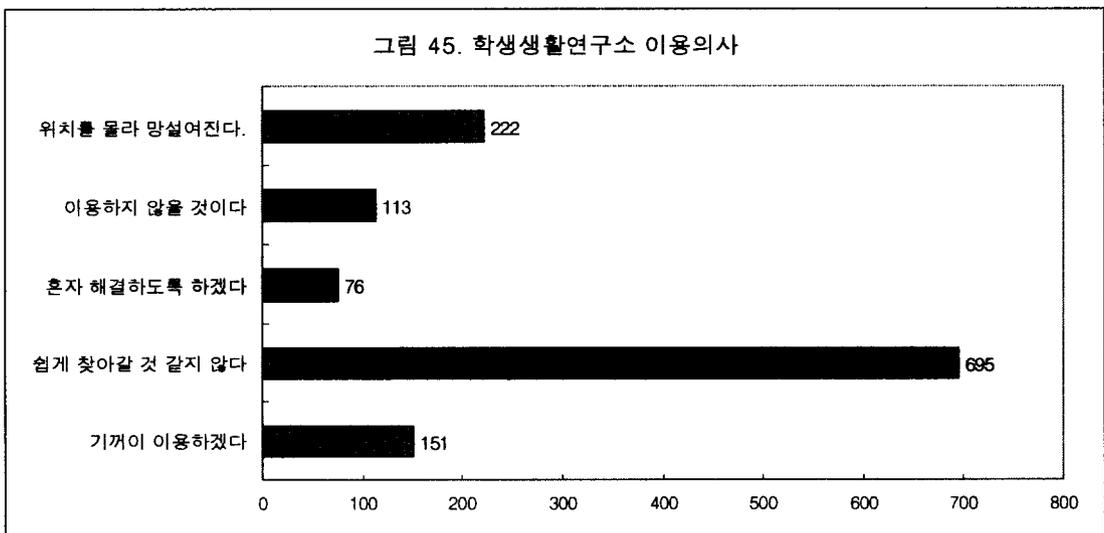


(2) 학생생활연구소 이용의사

학생생활연구소 이용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55.3%가 '쉽게 찾아갈 것 같지 않다'라고 응답, 이용의사가 거의 없음을 보여주었으며, '위치를 몰라 망설여진다'는 비율도 17.7%로 연구소 활동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을 드러내 주었다. 단과대별로 살펴보면 기꺼이 이용하겠다는 대답으로 사회과학대학이 16.8%로 응답, 다른 단과대학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5〉 단과대별 학생생활연구소 이용의사

	사회과학 대학	인문과학 대학	자연과학 대학	약학 대학	예술 대학	정보과학 대학	디자인 대학	공연예술 대학	전체
기꺼이 이용하겠다	30 16.8%	42 12.6%	25 12.3%	2 5.4%	17 10.6%	15 9.9%	15 11.7%	5 7.9%	151 12.0%
쉽게 찾아갈 것 같지 않다	99 55.3%	174 52.1%	117 57.4%	18 48.6%	84 52.2%	91 60.3%	76 59.4%	36 57.1%	695 55.3%
혼자 해결 하도록 하겠다	7 3.9%	22 6.6%	9 4.4%	2 5.4%	12 7.5%	9 6.0%	8 6.3%	7 11.1%	76 6.0%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11 6.1%	29 8.7%	15 7.4%	8 21.6%	15 9.3%	17 11.3%	11 8.6%	7 11.1%	113 9.0%
위치를 몰라 망설여진다	32 17.9%	67 20.1%	38 18.6%	7 18.9%	33 20.5%	19 12.6%	18 14.1%	8 12.7%	222 17.7%
전체	179 100.0%	334 100.0%	204 100.0%	37 100.0%	161 100.0%	151 100.0%	128 100.0%	63 100.0%	125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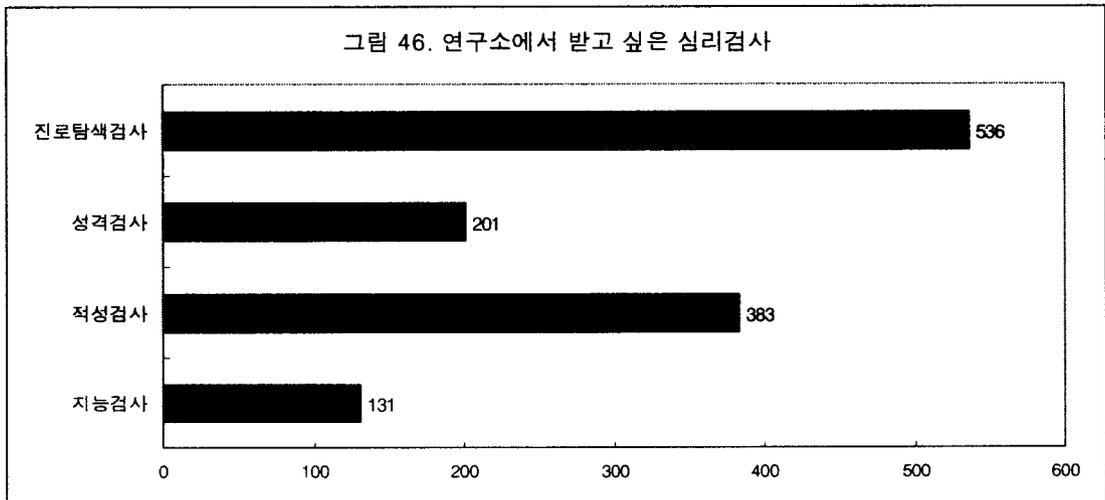
(3) 학생생활연구소에서 받고싶은 심리검사

연구소를 이용해 받고싶은 심리검사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전체의 42.8%가 '진로 탐색 검사'라고 대답, 진로 탐색 검사가 가장 받고 싶은 검사로 조사되었고, 그 다음으로 '적성검사'가 30.6%, '성격검사'가 16.1%, '지능검사'가 10.5%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과대별로 살펴보면 진로탐색검사는 사회과학대(50.8%)가, 적성검사는 인문과학대학(35.3%)이, 성격검사는 공연예술대학(32.8%)이, 지능검사는 디자인대학(17.3%)이 다른 단과대 보다 더 관심있는 검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6〉 단과대별 받고 싶은 검사

	사회과학 대학	인문과학 대학	자연과학 대학	약학 대학	예술 대학	정보과학 대학	디자인 대학	공연예술 대학	전체
지능검사	11 6.1%	35 10.5%	13 6.4%	4 11.1%	23 14.4%	19 12.7%	22 17.3%	4 6.6%	131 10.5%
적성검사	59 33.0%	118 35.3%	60 29.4%	12 33.3%	32 20.0%	52 34.7%	29 22.8%	21 34.4%	383 30.6%
성격검사	18 10.1%	38 11.4%	28 13.7%	9 25.0%	48 30.0%	12 8.0%	28 22.0%	20 32.8%	201 16.1%
진로탐색검사	91 50.8%	143 42.8%	103 50.5%	11 30.6%	57 35.6%	67 44.7%	48 37.8%	16 26.2%	536 42.8%
전체	179 100.0%	334 100.0%	204 100.0%	36 100.0%	160 100.0%	150 100.0%	127 100.0%	61 100.0%	125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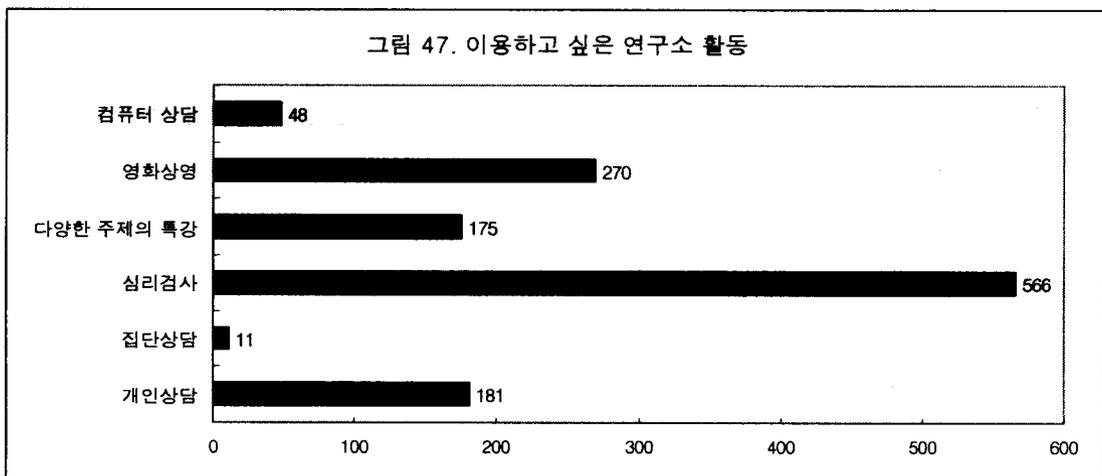


(4) 이용하고 싶은 학생생활연구소 활동

학생생활 연구소 활동중 이용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가장 높은 비율로 전체 45.2%가 '심리검사'라고 대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영화상영'이 21.6%, '개인상담' 14.5%, '다양한 주제 특강' 14.0% 순으로 조사되었다. 단대별로 살펴보면, 공연예술대학이 53.2%의 비율로 다른 단과대에 비해 심리검사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디자인대학이 30.5%의 비율로 다른 단과대학에 비해 영화상영을 더 이용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7〉 이용하고 싶은 학생생활연구소 활동

	사회과학 대학	인문과학 대학	자연과학 대학	약학 대학	예술 대학	정보과학 대학	디자인 대학	공연예술 대학	전체
개인상담	27 15.2%	51 15.3%	35 17.2%	7 19.4%	16 9.9%	19 12.8%	20 15.6%	6 9.7%	181 14.5%
집단상담	3 1.7%	3 .9%	3 1.5%		1 .6%			1 1.6%	11 .9%
심리검사	80 44.9%	158 47.4%	83 40.7%	15 41.7%	74 46.0%	70 47.7%	53 41.4%	33 53.2%	566 45.2%
다양한주제의 특강	29 16.3%	49 14.7%	29 14.2%	3 8.3%	24 14.9%	21 14.1%	13 10.2%	7 11.3%	175 14.0%
영화상영	31 17.4%	62 18.6%	45 22.1%	10 27.8%	36 22.4%	34 22.8%	39 30.5%	13 21.0%	270 21.6%
컴퓨터상담	8 4.5%	10 3.0%	9 4.4%	1 2.8%	10 6.2%	5 3.4%	3 2.3%	2 3.2%	48 3.8%
전체	178 100.0%	333 100.0%	204 100.0%	36 100.0%	161 100.0%	149 100.0%	128 100.0%	62 100.0%	125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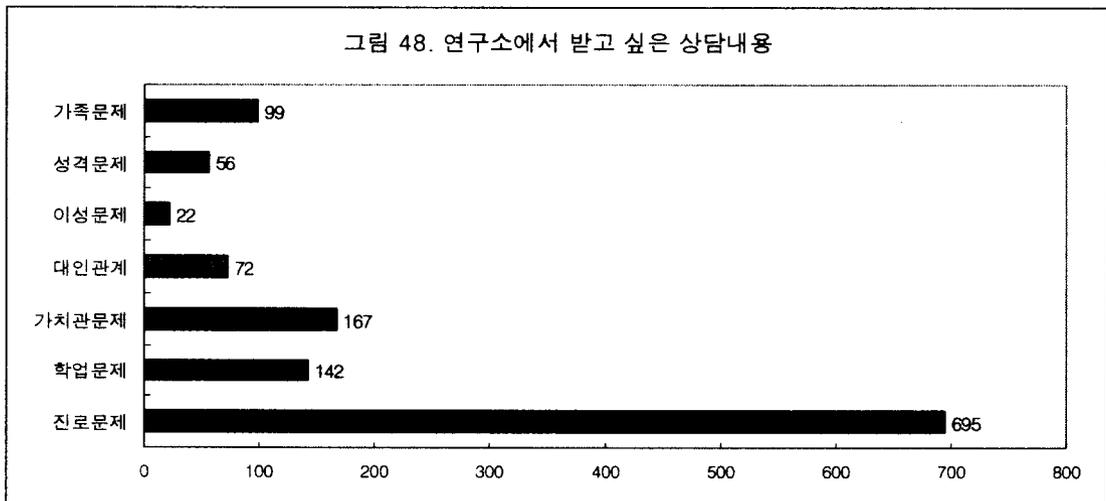


(5) 학생생활연구소에서 받고 싶은 상담

학생생활연구소에서 받고 싶은 상담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진로문제(55.5%), 가치관문제(13.3%), 학업문제(11.3%), 가족문제(7.9%), 대인관계(5.7%), 성격문제(4.5%), 이성문제(1.8%)순으로 조사되었다. 단과대별로 살펴보면, 사회과학 신입생들이 진로문제로 상담을 받기 원한다는 대답에 68.7%의 비율로 응답하여 타 단과대학보다 높은 비율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8〉 단과대학별로 살펴본 학생생활연구소에서 받고 싶은 상담

	사회과학 대학	인문과학 대학	자연과학 대학	약학 대학	예술 대학	정보과학 대학	디자인 대학	공연예술 대학	전체
진로문제	123 68.7%	195 58.4%	128 62.7%	13 36.1%	64 39.8%	91 60.7%	61 48.0%	20 32.3%	695 55.5%
학업문제	17 9.5%	39 11.7%	25 12.3%	4 11.1%	22 13.7%	15 10.0%	15 11.8%	5 8.1%	142 11.3%
가치관문제	15 8.4%	52 15.6%	15 7.4%	8 22.2%	24 14.9%	22 14.7%	20 15.7%	11 17.7%	167 13.3%
대인관계	6 3.4%	11 3.3%	17 8.3%	1 2.8%	13 8.1%	5 3.3%	11 8.7%	8 12.9%	72 5.7%
이성문제	4 2.2%	2 .6%	2 1.0%	2 5.6%	6 3.7%	1 .7%	2 1.6%	3 4.8%	22 1.8%
성격문제	5 2.8%	13 3.9%	7 3.4%	3 8.3%	7 4.3%	7 4.7%	11 8.7%	3 4.8%	56 4.5%
가족문제	9 5.0%	22 6.6%	10 4.9%	5 13.9%	25 15.5%	9 6.0%	7 5.5%	12 19.4%	99 7.9%
전체	179 100.0%	334 100.0%	204 100.0%	36 100.0%	161 100.0%	150 100.0%	127 100.0%	62 100.0%	125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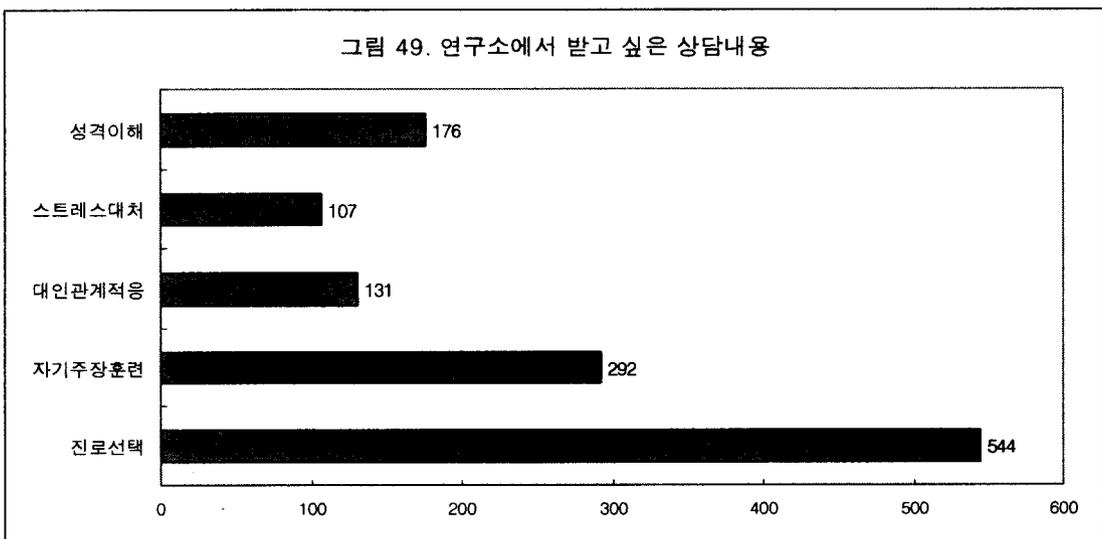
(6) 학생생활연구소에서 받고 싶은 상담프로그램

학생생활연구소에서 받고 싶은 상담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진로선택'(43.5%), '자기주장훈련'(23.4%), '성격이해'(14.1%), '대인관계적응'(10.5%), '스트레스대처'(8.6%) 순으로 조사되었다. 단과대별로 살펴보면, 인문과학대학과 사회과학대학이 진로선택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비율이 다른 단과대학보다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다.(각각 50.5%, 50.3%)

〈표 49〉 단과별로 살펴본 학생생활연구소에서 받고 싶은 상담프로그램

	사회과학 대학	인문과학 대학	자연과학 대학	약학 대학	예술 대학	정보과학 대학	디자인 대학	공연예술 대학	전체
진로선택	90 50.3%	168 50.5%	100 49.8%	13 36.1%	46 28.6%	74 49.0%	35 27.6%	18 29.0%	544 43.5%
자기주장훈련	42 23.5%	68 20.4%	39 19.4%	7 19.4%	44 27.3%	36 23.8%	39 30.7%	17 27.4%	292 23.4%
대인관계적응	15 8.4%	28 8.4%	26 12.9%	7 19.4%	21 13.0%	9 6.0%	17 13.4%	8 12.9%	131 10.5%
스트레스대처	7 3.9%	25 7.5%	10 5.0%	2 5.6%	24 14.9%	17 11.3%	16 12.6%	6 9.7%	107 8.6%
성격이해	25 14.0%	44 13.2%	26 12.9%	7 19.4%	26 16.1%	15 9.9%	20 15.7%	13 21.0%	176 14.1%
전체	179 100.0%	333 100.0%	201 100.0%	36 100.0%	161 100.0%	151 100.0%	127 100.0%	62 100.0%	1250 100.0%

그림 49. 연구소에서 받고 싶은 상담내용



IV. 요약 및 결론

본 실태조사에서는 2002년도 신입생 1577명 중 1259명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일반적 특성, 환경 특성, 대학 및 전공에 관한 의견, 대학 생활에 대한 견해, 학생생활연구소에 대한 의견 등 다섯 영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영역은 신입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문항들이었다. 먼저 출생연도에 있어서는 1983년생이 가장 많아서 전체의 반수 이상(59.6%)을 차지하였다. 약학대학의 경우 1982년생의 비율이 37.8%로 타 단과대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약학대학생들의 높은 재수 및 삼수 비율(59.5%)을 반영해주고 있다. 입학전 사회경험이 있는 비율은 전체의 12.8%로 낮은 편이었는데, 공연예술대학의 경우에는 26.6%가 사회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다른 단과대학에 비하여 가장 높았다. 한편, 종교에 대해서는 무교와 기독교가 각각 전체의 1/3 정도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율이었으며, 천주교와 불교는 각각 전체의 15% 정도를 차지하였다. 단과대학별로는 공연예술대학이 기독교를 종교로 갖고 있는 경우가 반수 이상(51.5%)으로 가장 높았던 반면, 약학대학은 무교의 비율이 반수 정도를 차지하였다(48.6%). 출신 고등학교의 소재 지역은 서울·경기지역이 전체의 8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서울 55.6%, 경기 24.9%). 단과대학별로는 공연예술대학의 경기지역 고등학교 출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29.7%), 약학대학의 경우 경상도 및 충청도 지역 고등학교 출신 비율이 높았다(30.6%). 이러한 결과는 생활지역에 관한 응답과도 관련이 있었다. 즉 약학대학생들의 서울지역 거주비율은 전체의 서울지역 거주비율인 77.4%보다 높은 89.2%였는데, 이는 약대생들의 경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방 출신 학생들이 생활지역을 서울로 이주한 것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인다. 한편 통학에 소요되는 시간에 있어서는 1시간 이상이 소요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62.1%였고, 이 중 2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는 5.6%를 차지하였다.

두 번째 영역인 신입생들의 '환경적 특성'은 주로 가정환경에 대한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부모님의 생존여부에 대해서는 대다수가(96.8%) 양친 모두 생존하는 경우였지만, 어머니만 생존하는 경우와 아버지만 생존하는 경우, 그리고 양친 모두 사망한 경우도 소수 있었다. 부모님의 학력을 살펴보면, 대체로 부친의 학력이 모친의 학력보다 높아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비율이 부친의 경우에는 92.4%였던 반면, 모친의 경우는 80%에 해당되었다. 한편, 부모의 학력 수준이 대학졸업인 경우가 가장 높은 단과대학은 약학대학으로 부친의 경우는 78.4%, 모친의 경우는 48.6%가 해당되었다. 부모의 직업에 있어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친의 직업 유형은 관리직과 사무직으로 각각 전체의 1/5 정도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전문직과 판매직이 각각 15% 정도를 차지하였고, 농어민의 비율은 3% 정도로 나타났다. 모친의 경우는 상당수(64.8%)가 미취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의 전문직 비율이 가장 높은 경우는 약학대학의 경우로, 부친의 전문직 비율은 31.4%였고, 모친의 전문직 비율은 20%였다. 가정에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64%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

고, 문제가 있다고 한 경우에는 경제적인 문제를 가장 많이 지목하였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무려 98%가 중류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연예술대학의 경우 32.8%가 가정이 경제적인 문제를 당면하고 있다고 하여 타 단과대학에 비하여 가장 높은 비율이었는데, 이들 부모의 높은 교육 수준이나 전문직 및 관리직 종사 비율이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공연예술대학 신입생들의 가정 경제가 특별히 어려운 것으로는 결론짓기 어렵다. 이에는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 수준의 차이 등 다른 요소가 관련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외에 등록금 조달 방법, 월 평균 용돈 등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대다수(96%)가 부모로부터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용돈 수준은 월 30만원 미만이 가장 많은 36.3%를 차지하였다. 단 약학대학의 경우, 월 3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8.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예술대학, 디자인대학, 공연예술대학 신입생들이 이와 같이 응답한 비율이 차례로 높았다.

세 번째 영역인 '대학 및 전공에 관한 의견'에서는 동덕여자대학교와 자신이 선택한 전공 또는 단과 대학에 대한 견해를 묻는 다양한 질문들이 다루어졌다. 본 대학을 선택한 동기에 대해서는 반수에 가까운 비율(45.9%)이 '성적에 따라서' 선택하였다는 반응을 하였고, '지방 학과가 좋아서' 선택하였다는 동기에는 1/5(21%) 정도가 응답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단과대학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사회, 인문, 자연, 정보과학대학은 전체적인 경향과 마찬가지로 성적을 높은 비율(50% 이상)로 지목한 반면, 약학, 디자인, 공연예술대학은 지방 학과가 좋아서 선택하였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단과대학이나 학부 선택동기에 대해서는 대학교 선택 동기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 성적보다는(17.2%) 적성을 고려하였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53%). 특히 공연예술, 디자인, 예술대학의 경우에는 70% 이상이 '적성을 고려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약학대학 학생들의 경우 전공을 택한 이유로 '취업 전망'을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56.8%) 적성은 소수만이 선택하여(5.4%) 대조를 이루었다. 본교 선택에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는 반수 정도(45.4%)가 자기 자신을, 그리고 1/5(22.3%) 정도가 교사를 들었으나, 약학대학의 경우 부모님을 지목한 비율과 디자인대학의 경우 교사를 지목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각각 45.9%, 34.1%). 또한 본교에 대한 인식이나 입시관련 정보를 얻은 통로로는 인터넷과 안내 책자를 가장 많이 들어서 매스컴을 통한 본교 홍보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고, 본교에 대한 홍보 중 인상 깊었던 것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반수 정도(46.4%)가 '기타'로 응답하여 많은 학생들이 홍보에 대해서 특별한 인상을 받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본교 홍보시기로 가장 적절한 때로는 고 3 중 1학기를 가장 많이(45.2%) 들었고, 다음으로 고 3의 2학기를 들었다(20.4%). 마지막으로 본교 입학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여러 문항들중 만족 정도에 있어서는 전체의 59%가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표명하였고 나머지는 불만족한 편인 것으로 반응하였다. 또한 본교에 대해 만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발전하는 이미지'(30.7%)와 '전공특화'(14.5%)를 지목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사실상 기타에 반응한 비율이 가장 높아(32.1%) 많은 학생들이 본교에 대해 만족하는 특별한 이유를 지목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여자대학교로서의 본 대학의 장점으로는 '성차별 없음'을 가장 많이 들었고

(37.2%), 그 다음으로는 '자립심과 독립심을 키울 수 있다'는 응답을 많이 하였다(23.9%). 그러나 장점이 없다는 항목에도 17.1%가 반응하여 여자대학의 장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어느 정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네 번째 영역인 '대학생활 영역'은 학교생활 전반 및 주요 관심사, 장래의 계획 등에 관한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대학에 진학한 목적으로는 가장 많은 학생들이 '사회적 지위획득'을 들었다(28.1%). 반면에 대학의 근본 취지이자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진리와 학문 탐구'는 많지 않은 학생들(15.1%)이 반응하였다. 대학생으로서 추구해야 할 것으로는 '교양을 갖춘 지성인'을 가장 많이 들었다(40.2%), 다음으로 '유능한 사람'(24.6%), '사회문제 해결'(14%), '사회봉사'(5.7%)를 들었다. 대학에서 교수에게 기대하는 바로는 '전공 지도'를 희망하는 경우(30.3%) 이외에도 '인간적 유대'(23.3%)와 '진로지도'(21.4%)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나서 교수로부터 다양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공공부 이외의 관심사로는 '인간관계'를 가장 많이(45.1%) 들었다. 졸업 후의 계획과 관련하여, 먼저 진로에 대해서는 취업이나 유학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높았으나(각각 35.9%, 27.7%), 단과대학별로는 차이가 있어서 약학대학의 경우에는 취업을 계획하는 비율이 높았고(56.8%), 디자인대학의 경우에는 유학 계획이(60.5%), 그리고 공연예술대학의 경우에는 대학원 진학 계획(22.2%)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직업 선택 시 고려하고자 하는 점으로는 적성과 소질에 맞는지를 살피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79.2%), 다음으로는 보수 정도를 꼽았다(11.9%). 사회에서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고 보는 요인으로는 '개인의 노력'을 가장 많이 지목하였고(40.1%), 다음으로는 '인간관계'를 꼽았다(16.2%). 마지막으로 부직(아르바이트)에 관한 질문들에서, 부직 희망 여부에 있어서는 대다수(82.5%)가 부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희망하는 부직 종목으로는 '학업지도'가 가장 많았다. 또한 부직을 희망하는 이유로는 반수 정도(54.9%)가 용돈마련을 들었고, 다음으로 학비마련을 들었다(29.7%).

다섯 번째 영역은 학생생활연구소에 대한 인지 정도와 이용 의사에 관한 질문들이었다. 학생생활연구소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응답과 '전혀 모르겠다'는 응답을 한 비율이 90%를 넘어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연구소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생활연구소를 이용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이용의사를 밝힌 학생의 비율이 12%에 불과하여 학생생활연구소의 홍보 필요성과 많은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활동 개발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한편, 연구소에서 받고 싶은 심리검사로는 진로탐색검사를 가장 많이 들어서(42.8%) 학생들이 진로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희망 검사 종류로는 이외에도 적성검사, 성격검사, 지능검사가 있었다(각각 30.6%, 16.1%, 10.5%)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 가운데 본 대학교의 홍보 및 입시, 그리고 학생 지도에 있어서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들을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에도 본 대학교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본 대학교가 최근 특화 중점 단과대학으로 삼아왔던 공연예술대학이나 약학대학의 경우 경기도 지역 고

등학교나 충청 및 경상 지역 고등학교 출신의 신입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입 지원 학생 수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방 학생들의 서울지역 대학 진학 희망 정도가 아직까지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로서 본 대학교가 지방의 우수학생 유치를 위하여 학교 홍보를 전국적으로 실시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본 대학교에 대한 입시 홍보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신입생들이 본 대학교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 가장 많이 지목한 인물은 ‘자신’이었다. 그러나 약학대학의 경우에는 ‘부모님’을 그리고 디자인대학의 경우에는 ‘교사’를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서 입시생들 뿐 아니라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도 다양하게 강구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홍보와 관련하여, 신입생들이 본 대학교에 대한 정보를 얻은 근원으로는 ‘인터넷과 안내책자’가 가장 많았던 점으로 보아, 본 대학교 홈페이지와 입시관련 안내 책자의 내용 구성이 대단히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본 대학교가 현재까지 펼쳐왔던 단과대학 특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그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신입생들이 본 대학교를 선택한 이유로는 ‘성적’을 지목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단과대학별로는 응답 양상에서 차이가 있어 사회·인문·자연·정보과학대학의 경우에는 ‘성적에 의해서’ 본 대학교를 선택하였다는 반응이 그대로 높게 나타난 반면, 약학·디자인·공예예술대학의 경우에는 ‘지망학과가 좋아서’ 선택하였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후자의 단과대학들은 그동안 본 대학교가 중점적으로 특성화를 추진해온 대학으로서 입시생들로부터 ‘우수 전공(학과)’으로서의 평가를 획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성화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전공(학과)에 대한 이와 같은 선호도는 차후에 소속전공(학과)에 대한 자부심과 학교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특성화를 꾸준히 지속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또한 특성화를 사회·인문·자연·정보과학대학에까지 확대한다면 본 대학교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될 뿐 아니라 우수 학생의 유치에도 결실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넷째, 본 대학교 입학 및 재학에 대한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적용되어야 한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본 대학교에 대하여 반 이상(59%)의 신입생이 ‘보통’이거나 ‘만족한다’는 응답을 하였다. 이는 나머지 신입생들이 불만족한 느낌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들이 학교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대외 및 대내적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한편, 본 대학교에 대하여 만족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 지목된 것은 ‘발전하는 이미지’와 ‘전공특화’였는 바,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강화 또한 학생들의 만족도 증진에 있어서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여자대학교의 장점을 강화하고 부각시켜야 한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신입생들은 여자대학교의 장점으로 ‘성차별 없음’과 ‘자립심과 독립심을 키울 기회가 부여된다’는 응답을 많이 하였다. 그러나 17%에 해당되는 신입생들은 여자대학이 ‘특별한 장점이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는 여자대학교가

남녀공학인 대학교와 비교하여 학생들의 선호도면에서 우월성을 차지하기 어려움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본 대학교가 여자대학교로서의 장점, 즉 성차별 없이 자립심과 독립심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부여하는데 주력해야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여섯째, 단과대학별 진로 지도에 있어 학생들의 희망과 계획을 고려한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졸업 후 희망하는 바나 계획에 있어 단과대학별로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약학대학의 경우에는 취업이, 디자인대학의 경우에는 유학이, 그리고 공연예술대학의 경우에는 대학원 진학이 타 단과대학의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대학 차원에서, 그리고 각 전공(학과)에서도 차별화된 정보 제공과 진로지도를 위하여 구체적인 준비가 있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연예술대학의 경우에는 본 대학교에서 대학원 진학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학생생활연구소에 대한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본 연구소에 대한 신입생들의 인지도는 매우 낮았다. 또한 학생생활연구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도 높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소에 대한 홍보가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할 필요성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신입생들이 수강하는 교양과목을 통한 홍보, 교내 게시판 및 상담소 주변 벽면을 통한 홍보, 안내문 배부, 연구소 홈페이지의 재정비, 다양한 상담 및 특강 프로그램 실시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2002년 학생생활연구소 활동

동덕여자대학교 학생생활 연구소는 재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해나감에 있어 보람있고 원만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마련된 순수한 봉사기관이다.

본 연구소의 주요 활동은 크게 개인상담, 그룹상담(집단상담), 심리검사, 연구 및 보고서 발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자신과 환경과의 불일치에서 오는 심리적인 고민이나 갈등, 정서적 불안과 긴장, 교우나 이성 교제 등의 인간관계, 학습방법과 진로(직업선택, 진학)등의 교육적·직업적 문제, 그리고 가정내의 가치관이나 도덕적 갈등 등과 같은 개인적 문제에 대한 상담과 선도가 가장 중요한 업무라 할 수 있다.

2002년 1학기동안 본 연구소에서 이루어진 주요 영역별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I. 상담활동

1. 개인 상담

개인 상담은 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의 문제나 고민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아봄으로써 학교생활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심리적으로 보다 성숙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담자와의 면접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2002년 1학기 상담 내용은 대부분 진로에 관한 고민이나 학과에 대한 부적응 문제, 교우와의 관계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한 것이었으며 심리적 불안정에 관한 문제를 고민하고 상담하는 사례도 있었다.

개인상담은 본 연구소의 주된 활동 중 하나로 내담자인 학생이 상담소로 찾아와 상담 희망시간을 예약한 후 관련 상담 영역을 담당하는 상담 위원 교수에게 의뢰하여 진행되었다. 상담은 단회 상담이 대부분이었으나, 연속상담으로 2회 이상 상담 받은 내담자들도 있었다. 상담시간은 매 회기 4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진행되었다.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2년 1학기 동안 본 연구소에서 실시된 개인 상담의 분포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 14명, 2학년 15명, 3학년 8명, 4학년 11명으로 총 48명으로 집계되었다. 평균 상담 시간은 48.3분 이었다.

2. 집단 상담

집단상담은 소집단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대학생으로서의 바람직한 성장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집단내의 상호 역동성을 통해 문제해결의 방법을 모색하고, 대인관계 기술을 증진, 사귀며 자신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2002년 1학기에는 집단상담이 실시되지 못하였다. 보다 활발한 홍보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집단상담을 활성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다.

II. 심리검사

본 연구소에서 행하는 심리검사 실시의 주 목적은 각종 검사도구를 통하여 개인의 성격, 적성 및 인성 등 심리적 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이다. 본 상담소에서 실시하는 심리검사에는 적성검사와 다면적 인성검사(MMPI), 성격유형검사(MBTI)가 있으며, 성격유형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두 검사는 한국가이던스와 중앙적성출판사에 검사를 의뢰한 후 학생본인의 의사에 따라 상담 위원 교수들과의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적성검사 1시간 30분, 인성검사 50~60분, 성격유형검사가 40분 정도로 배정, 소요되고 있다.

2002년도 1학기 중 심리검사별 참여 인원은 적성검사 19명, 인성검사 27명, 성격유형검사 22명이었으며, 학년별 참여도는 적성검사에서 2학년 학생들의 참여가 부진하고, 나머지 학년에는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인성검사에서는 3학년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았으며 성격유형검사에서는 모든 학년에서 차이가 없이 참여하였다.

표1. 심리 검사별 참여인원/학년별 참여도

검사유형	참여인원	학년별 참여인원			
		1	2	3	4
적성검사	19	5		6	8
MMPI	27			22	5
MBTI	22	2	4	7	9
계	68	7	4	35	22
		68			

Ⅲ. 연구 및 기타활동

1. 2002 신입생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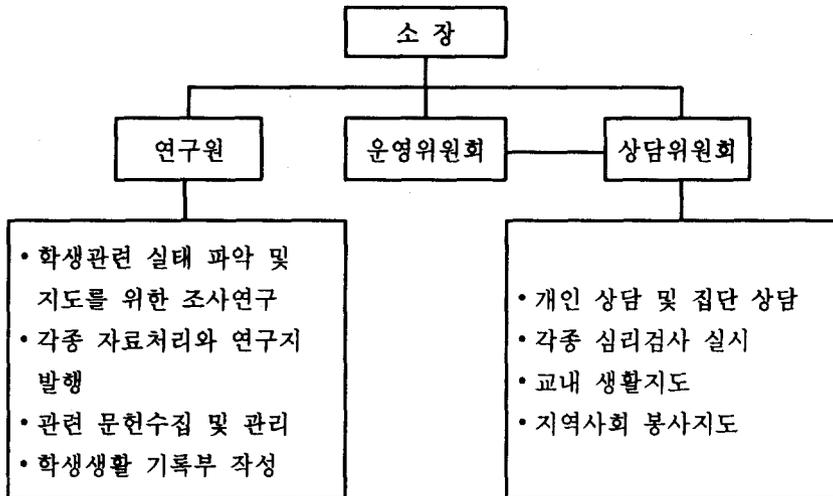
본 연구소에서는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을 보다 보람있게 보내고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위해 매년 신입생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2002년에는 신입생들이 모두 수강하는 독서와 토론이라는 교양강좌 시간을 이용하여 신입생의 일반특성과 환경특성, 대학 및 전공에 관한 의견과 대학생활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2. 영화상영

매 학기 학생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영화를 선정하여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기간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에 2회에 걸쳐 영화상영을 하고 있다. 2002년 1학기에는 <기분 좋은 이야기>, <다른 나의 모습>, <높은 세계를 향한 갈망>, <순수의 세계를 향한 추억>등의 영화를 선정하여 상영하였으며 매회 30~50명 정도의 인원이 관람하였다.

Ⅳ. 학생생활 연구소 구성

1. 조직표



2. 인적사항

① 소 장 : 이 종 희 (아동학 전공 주임, 자연과학대학 아동학전공 부교수)

② 상담 위원

공 석 영 (교양교직학부)

신 혜 섭 (자연과학대학, 가정복지학 전공)

남 기 철 (자연과학대학, 가정복지학 전공)

김 명 숙 (인문과학대학, 국사학 전공)

김 선 호 (정보과학대학, 컴퓨터학 전공)

③ 연구원

구현아, 윤주화

④ 조교

배영진 (2002.3~2002.8)

신혜인 (2002.8~현재)